벼랑끝 전술 vs 벼랑끝 원칙

metro®

메트로 2015년 8월 25일 화요일 제3286호 www.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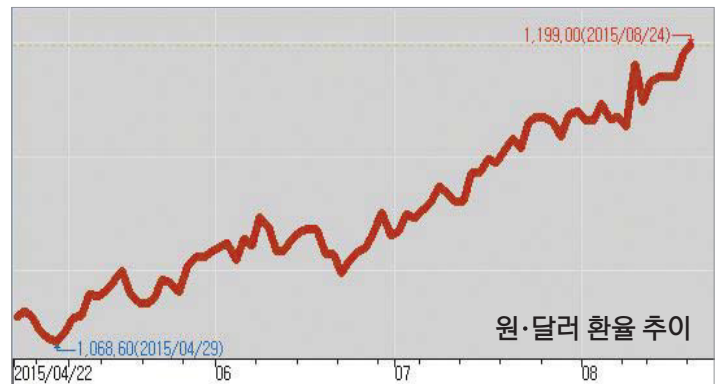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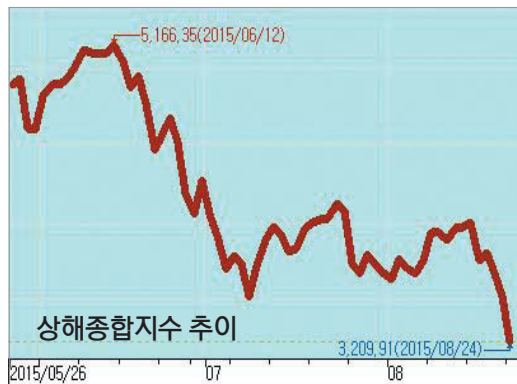
market index <24일>

코스피 1829.81 (−46.26)

코스닥 613.33 (−13.72)

금리(국고채 3년) 1.71 (변동없음)

환율(원·달러) 1200.80 (+6.80)

아시아 검은 월요일

중국 경기둔화 우려에 '백약이 무효'
상해지수 또 급락… 코스피도 −2.47%
日·홍콩·대만 증시 4~8% 동반 폭락

아시아 주요 증시가 중국 증시에 대한 우려를 이기지 못하고 동반 쇼크 상태에 빠졌다.

특히 대만증시는 중국 증시 폭락 등의 영향으로 장중 7.55%나 급락해 25년 만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주가 부양을 위해 연기금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등 뒤늦게 유동성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투자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24일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49% 떨어진 3209.91에 마감했다. 이로써 중국 증시는 8년만의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날 중국 증시가 급락한 것은 경기둔화에 대한 불안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21일 발표된 중국 8월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잠정치는 47.1로 나타나 2009년 3월 이후 6년5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또 국제 투자은행(IB)들은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중국정부가 세운 목표치 7%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각각 6.8%로 내다봤다. 이같은 전망대로 된다면 중국 경제는 하반기에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7%를 기록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대폭 낮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국의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또 올해 중국의 성장률을 6.6%로 예상했다. 중국 당국의 목표치 7.0% 달성이 어려운 것은 물론 실제성장률은 6%를 간신히 넘는데 그칠 수도 있다.

이때문에 경제문가들 사이에서는 '9월 경제 위기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중국 경제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아도 반짝효과에 그치고 만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의 조치가 시장의 불신만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중국이 지난 1분기와 2분기에 공식적으로 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낮았을 것으로 분석했다. 상반기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율도 6.3%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2.2%에 머물렀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중국경제와 증시가 동요함에 따라 국내 증시를 비롯해 일본과 대만 증시가 모두 동반 추락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일보다 46.26포인트(2.47%) 내린 1829.81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장중 한때 1800.75까지 추락해 1800선을 위협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2013년 6월 26일의 장중 저점(1772.49)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닛케이 225지수는 전일보다 895.15포인트(4.61%) 내린 1만8540.68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 2013년 6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토픽스지수는 전장에 비해 92.14포인트(5.86%) 하락한 1480.87에 거래를 마쳤다.

두 지수는 지난 주말 뉴욕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 마감한 영향으로 급락세로 출발했다. 이후 중국 증시가 장중 한때 8% 이상 폭락하는 등 불안 심리를 부추겨 낙폭을 늘렸다.

종목별로는 금융 관련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미즈호 금융 그룹이 8.16%, 미쓰비시UFJ 금융 그룹이 8.34% 각각 떨어졌다.

대만 가권지수 역시 약세를 면치 못했다.

대만 가권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76.58포인트(4.83%) 하락한 7410.34로 마감했다. 지수는 장중 7.5% 넘게 급락했으며 600여 상장사의 주가가 10% 이상 하락했다.

이에 따라 대만 행정원(총리실)이 증권당국에 증시 안정기금 투입과 4개 국부펀드의 주식 매입 검토 등 긴급 부양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중국 증시와 경제 불안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신흥국 전반의 통화가치 약세로 이어지고 있다.

또 국제원자재 시세가 연일 떨어지고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 증시도 이에 감염돼 하락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국발 불확실성 확산 조짐으로 그동안 견고했던 선진국 증시도 큰 충격을 받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민지 기자 minji@metroseoul.co.kr

외국자금 엑소더스

경기불안에 전쟁공포
증시·채권 유출 지속

국내 증권시장과 채권시장에서 국내외 리스크의 영향으로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7230억원 상당의 매물을 쏟아냈다.

이같은 규모는 지난 2013년 6월 21일에 8009억원 상당의 외국인 매물이 나온 이후 최대치다.

외국인은 비차익거래에서만 5248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는 중국 상하이종합지수 폭락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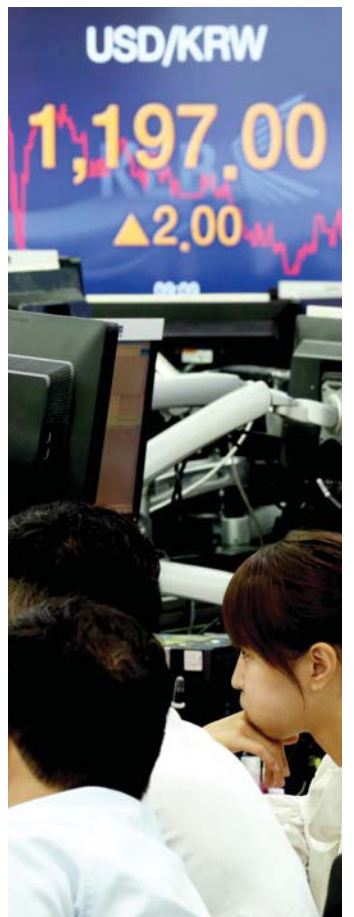
실제로 이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주 부진하게 나온 제조업 지표 탓에 장중 한 때 8.59%까지 폭락하기도 했다.

앞서 외국인들은 지난 6월에 '셀 코리아'로 돌아선 이후 최근 3개월간 5조원 상당의 국내 주식을 내다 팔았다.

원화가치가 하락하면서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 자금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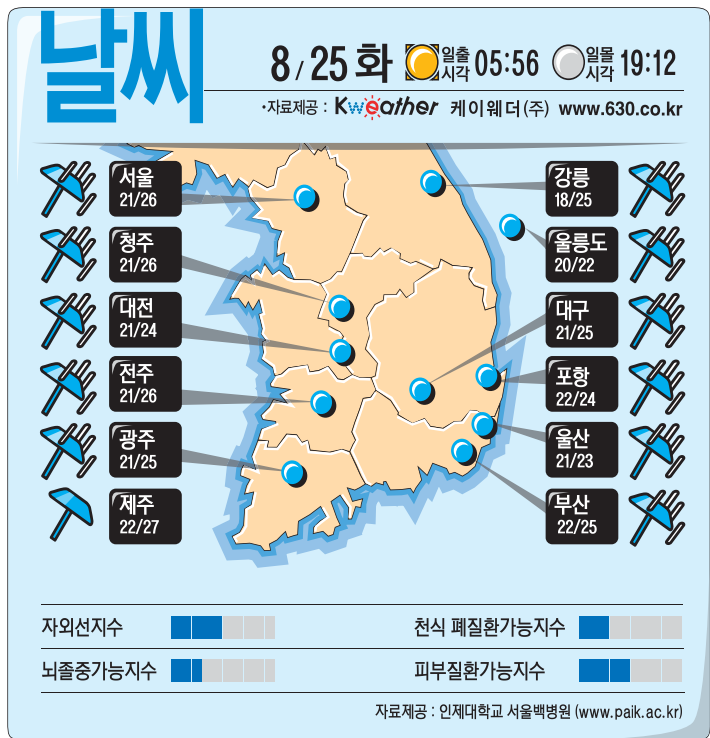
서울외환시장에서 이날 장중 원·달러환율은 3년10개월만에 1200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외국인의 원화 보유 잔액은 103조원이다. 외국인은 지난달에만 2조6000억원어치의 상장채권을 순유출하는 등 전월(6000억원)에 이어 2개월 연속으로 발을 뺐다.

박종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북한군의 포격 도발과 중국 경제 부진 등의 영향으로 24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200원대에 올라섰다. 장중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에 진입한 것은 2011년 10월 4일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과 중국 경제 둔화 우려, 남북 긴장관계 등이 맞물리면서 국내 금융시장 내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며 "환율상승 속도가 상승하면 외국인의 자금이탈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세요

국제

▲
중국이 항일승전 70주년을 맞아 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 준비에 열을 올리는 동안 중국 경제는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

▲ 24일 중국 증시가 폭락하는 등 세계 금융시장이 혼돈상태에 빠지면서 오는 9월 미국 **금리 인상** 전망에 급격히 힘이 빠지고 있다. 그동안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RB)가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됐다.

▲ 태풍 **고니**가 일본 오키나와 서남서쪽 약 340㎞부근 해상을 지나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이다. 25일 새벽 3시경에는 제주도 서귀포 남동쪽 약 310㎞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의 전승절을 전후로 중국을 방문하려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계획이 백지화됐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국회 상황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며 방중 계획 보류를 발표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가 또다시 한국에 대해 막말을 퍼부었다. 23일(현지시간)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는 지난 21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최근 남북한 포격 등 대치상황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한국을 도움으로써 얻는 게 없으며 한국을 방어해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경제

▲
국내 **금융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증시 폭락과 미국 금리 인상 우려로 약세를 면치 못했던 증시에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며 대내외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 아시아 주요 **증시**가 중국 증시에 대한 우려를 이기지 못하고 동반 쇼크 상태에 빠졌다. 특히 대만증시는 중국 증시 폭락 등의 영향으로 장중 7.55%나 급락해 25년 만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주가 부양을 위해 연기금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등 뒤늦게 유동성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투자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질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 **함영주**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 부행장이 초대 KEB하나은행장에 내정됐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날 통합 하나·외환은행장후보 추천을 위한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통합은행장에 함영주 하나은행 부행장을 단독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 KDB대우증권 등 **산업은행** 금융 자회사 매각 계획이 확정됐다. 산은은 조속한 시일 내 매각을 추진하되 매각가치 극대화와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한다는 기본방침 하에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할 방침이다. 대우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은 시장수요를 감안해 패키지 또는 개별 매각을 병행키로 했다. 산은캐피탈은 별도로 개별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치

▲
남북 고위급 회담이 한창인 가운데 24일 북한이 잠수함에 이어 **공기부양정**까지 동원했다. 북한의 전쟁 위협에 한국의 동맹인 미국은 핵전력 카드를 내놨다. 감히 도발할 엄두를 못 내게 만든다는 의도다.

▲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관 고위급 회담을 두고 "이번 회담의 성격은 무엇보다 현 사태를 야기한 북한의 지뢰도발을 비롯한 도발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국회 청문회에서 "나는 의료 영리화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며 의료 영리화,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격진료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한정한다는 의견이다.

▲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22일 트위터에 "북에서 먼저 포격? 연천군 주민들은 왜 못 들었을까"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자 새누리당 측은 이 시장이 괴담을 퍼뜨린다며 비판했다.

사회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4일 국무총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구치소에 입감됐다. 수형자 분류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달 10일 교도소에 수감된다.

▲ 학교 20m옆 **호텔 건축**을 불허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명예훼손** 글에 대해 제3자 신고만으로도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일부 진보성향의 법률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가 이규태(65) 일광그룹 회장의 협박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 만취 여대생을 **성폭행** 한 혐의로 연예기획사 PD가 검거됐다.

▲ 서울 마곡지구 도시개발로 끊겼던 공항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오는 26일 완전히 연결될 예정이다.

'남북한 대치 국면…농민은 추수 시작' 북한의 포격 도발로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군 사격장 피탄지가 뒤로 보이는 강원 양구군에서 농부가 올해 첫 벼베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

▲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G4'**의 천연가죽 후면 커버의 내구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가죽은 닳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사용자 과실 여부에 따라 서비스센터에서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올해 상반기 회사의 대규모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9월 9일 **동시파업**을 결의했다. 업계에서는 조선사들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동결을 제시한데 따른 대응 조치인 것으로 보고 있다.

▲ 미국에서 시판 중인 **현대·기아차** 차종 중 엑센트, 투싼, 스포티지 등 3개 차종이 정면 일부를 들이받는 전측면 충돌(스몰오버랩) 시험에서 최저 등급을 받았다.

▲ SK플래닛의 대중교통 길안내 서비스 **'T맵 대중교통'**이 출시 1년여 만에 다운로드 수 400만건을 돌파했다.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이 홈플러스 매각 본입찰에 뛰어든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국민이 조성한 공적자산인 국민연금기금 약 1조원을 인수 투자금으로 약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될 전망이다.

▲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가 신세계그룹 **차명주식**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 관련 당국의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 금융당국이 지난 7월 완료된 서울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관세청(청장 김낙회)의 면세점 심사 정보 사전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

▲ **외식업계**가 모바일 판매가 해마다 늘며 '엄지족'을 잡기 위해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도미노피자는 피자 박스를 스마트폰 디자인으로 교체했다. SPC그룹의 배스킨라빈스에서는 해피포인트 앱에 예약 주문 서비스인 '해피오더'를 선보였다. 할리스커피도 SK플래닛과 '사이렌 오더' 서비스를 중이다. 롯데리아는 올해 초 모바일 앱 외에 웹을 통해 홈서비스 주문이 가능하도록 했다.

北 벼랑 끝 전술 vs 南 벼랑 끝 원칙

박 대통령 '양보 제로' 강경론
北군사위협에 전략무기 대응
남북 접촉, 유례 없는 장기전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박근혜 정부는 '벼랑 끝 원칙'으로 맞섰다. 북한의 지뢰도발과 포격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도발과 이완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이번에는 반드시 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이 유례없는 장기전이 된 배경이다.

남북 고위급 접촉이 밤샘을 거듭하며 사흘째에 접어든 24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회담의 성격은 무엇보다 현 사태를 야기한 북한의 지뢰도발을 비롯한 도발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매번 반복돼 온 도발과 불안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북한의)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북한이 도발 상황을 극대화하고 안보에 위협을 가해도 결코 물러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사과하지 않으면)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확성기 방송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의 그 어떤 도발도 강력히 응징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대화가 잘 풀린다면 서로 상생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와 군을 믿고 지금처럼 차분하고 성숙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아무리 위중한 안보상황이라도 정부와 군,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 지금의 안보 위기도 국민 모두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모은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으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애국심을 믿고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지난 20일 오후 4시를 전후해 포격도발에 나선 뒤 당일 밤 노동당 중앙군사위 비상확대회의를 열어 21일 오후 5시(평양시간)를 기해 최전방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기로 결정했다. 도발 당일 전면전을 불사하는 최고의 위기 상황으로 직행하는 고강도 '벼랑 끝 전술'이었다.

북한은 회담이 진행되는 도중에 위기수준을 더 끌어올리기도 했다. 23일 6·25이후 최대 규모로 잠수함을 바다로 전개하고, 24일에는 공기부양정까지 서해로 전개했다. 이미 후방에는 전술미사일이 배치된 상태였다. 국지전 준비를 마친 셈이다.

박근혜 정부는 망설이지 않았다. 한미 연합군이 즉각 최고 경계태세에 들어간 상황에서 한미 연합의 주력 전투기로 위력 시위를 벌였다. 24일 북한의 국지전 위협에는 핵공격이 가능한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전략무기 카드로 맞섰다. 실제 전개가 아닌 전개 검토 단계이지만 북한에는 충분한 위협이란 게 일반적인 평가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도발 땐 가혹할 정도로 응징"

美 전략자산 전개시점 검토

남북 고위급 회담이 한창인 가운데 24일 북한이 잠수함에 이어 공기부양정까지 동원했다. 북한의 전쟁 위협에 한국의 동맹인 미국은 핵전력 카드를 내놨다. 감히 도발할 엄두를 못내게 만든다는 의도다.

이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미는 현재 한반도 위기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 시점을 탄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할 수 없도록 강력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도발 시 후회하고 가혹할 정도로 대응함으로써 감히 도발을 못 하도록 하겠다. 한미가 그런 차원에서 (전략자산 전개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략자산은 막대한 파괴력으로 적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힘의 근원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 항공모함, 핵잠수함, 핵폭격기 등을 가리킨다.

한미가 투입을 검토 중인 미국의 전략자산은 괌의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B-52 전략폭격기와 B-2 스텔스 폭격기,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미 7함대 소속 핵추진 잠수함 등이다.

B-52는 2차대전 이후를 대표하는 전략 폭격기로 사거리 200~3000㎞의 공대지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B-2 스텔스 폭격기는총 중량 1만8144㎏에 달하는 핵폭탄 16발을 탑재할 수 있다. 7함대 소속 핵잠은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 미사일 150여기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4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인근 해상에서 이동하고 있는 해군 고속함정의 모습. /연합뉴스

한미는 북한이 과거 7차례 준전시상태를 선포했을 때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억제한 바 있다.

군 일각에서는 미 항공모함의 투입도 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한미 양국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때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출동해 무력 시위를 한 바 있다.

북한은 전날 6·25전쟁 이후 최대 규모인 잠수함 50여척을 출동한 데 이어 공기부양정 20여척을 서해에 전개했다. 공기부양정은 침투 목적의 특수부대원을 신속히 수송하는 선박이다. 북한이 보유한 핵심 3대 침투전력 중 하나로 꼽힌다.

북한은 준전시상태 전력 배치 계획에 따라 잠수함과 공기부양정 등을 전개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미는 북한의 도발 수준에 따라 실제 전략자산을 전개해 도발 의지 자체를 꺾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략자산을 전개할 경우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은 다음달 3일 전승절 열병식에서 전략미사일 등 전략자산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윤정원 기자 garden@

한명숙 "결백하다… 굴복하지 않을 것"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4일 서울구치소 수감 전 "저는 결백하다. 그래서 당당하다. 울지 않겠다.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이날 한 전 총리는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겠다"며 "나는 안에서, 여러분은 밖에서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내자"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정의가 이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장례식에 가기 위해 상복을 입었다"며 "죽은 사법정의를 살려내 달라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지난 22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아 참배한 것을 언급하며 "김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목소리가 쟁쟁하게 들리는 듯했다"고 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잠든 너럭바위에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조직된 시민의 힘이라고 적혀 있었다"며 "그것이 제 마음에 새겨지는 듯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한 전 총리의 형은 24일부터 집행된다. /윤정원 기자

흔들리는 中 경제… 군사대국 축포에 찬물

증시 폭락에 시장 불신
텐진 사고로 부패 방증

중국이 항일승전 70주년을 맞아 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 준비에 열을 올리는 동안 중국 경제는 한 없이 추락하고 있다. 미국과 함께 G2로 우뚝 서겠다는 중국의 야심찬 계획이 위기를 맞고 있다.

중국 주식시장은 24일 한때 장중 9%까지 폭락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증시 폭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경제성장률을 비롯해 중국 당국의 발표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쌓여온 결과다. 서방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국 당국이 밝히지 않은 중국 경제의 실체를 밝히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 리허설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병사들이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은 전문가들 수준에서 그치지 않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제너럴모터스(GM)와 폭스바겐(VW) 등 자동차업체들이 중국 현지에 세운 생산공장은 올해 상반기 들어 사상 처음으로 가동률이 100% 아래로 떨어졌다. 그만큼 시장 전망이 어둡다는 이야기다.

중국의 위기는 이것만이 아니다. 텐진 빈하이신구 항구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는 중국의 초고속 성장에 따른 빛과 그림자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빈하이신구는 상하이 푸동지구와 함께 중국의 고도 성장의 상징이다. 하지만 고도 성장의 이면에는 국영기업의 위법 행위와 안전불감증, 정부의 비밀주의와 부패가 뿌리내리고 있었다는 게 중국 스스로의 진단이다.

한 중국 시민은 웨이보에 "중국에서 발생한 재앙 중 관료와 기업 결탁과 관련 없는 것이 있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방 언론은 "(텐진 폭발 사고는) 중국이란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보였다.

중국은 현재 사회·경제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 같은 위기 속에서도 중국은 군사력을 과시하기에 여념이 없다.

전날 전승절 열병식 리허설에서는 1만여 명의 장병과 500여 대의 무기 장비, 200대에 가까운 군용기가 동원됐다. 중국은 다음달 3일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둥펑-41과 조기경보기 쿵징-2000, 중국의 차세대 스텔스기인 젠-20을 선보이며 미국에 맞서는 군사대국의 면모를 과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열병식은 대외적, 대내적으로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 열병식은 군사대국의 위상 뿐만 아니라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의 견고함을 과시한다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시진핑 체제도 정치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관영언론은 시 주석의 부패 청산 작업에 정치 원로들의 반대가 상상 이상이라며 반대자들을 맹렬히 비난한 바 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중국發 '블랙 먼데이'… 美 9월 금리인상설 흔들

"시기 상조" 경고 잇따라

중국발 증시 위기가 전세계에 밀어닥치면서 당초 유력했던 미국의 9월 금리인상설이 흔들리고 있다. 블랙 먼데이가 된 24일 곳곳에서 미국의 금리인상이 시기상조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 미즈호투신 투자 고문인 이토 유스케 수석 펀드 매니저는 블룸버그 통신에 "미국이 금리인상을 강행하면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이 리스크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며 "미국에서도 과거 일본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일본 경제는 디플레이션으로 장기 침체에 시달렸다.

구라쓰 야스유키 일본 RP테크 대표 이사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중국발 세계 주가 하락 이유는 중국은 물론 신흥국 경제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중국 경제가 둔화하는 가운데 미국 금융 당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신흥국의 경제는 한층 더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1일까지 세계를 일주한 주가 하락은 금리 인상을 늦춰 달라는 투자자들의 메시지"라고 했다.

실제 9월 금리인상 전망이 전보다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색소 캐피털 마켓의 케이 반 피터슨은 블룸버그 통신에 "미국 금리 선물시장에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9월 금리인상 전망이 기존 54%(8월 분석결과)에서 28%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트레이더들이 다음달 금리인상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했다. /송병형 기자

트럼프 "美, 한국 도울 필요 없다"

한반도 일촉즉발에 또 망언

미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사진)가 또 다시 무임승차론을 내세워 미국이 한국을 방어해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포격 도발 이후 한반도에서 일촉즉발의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23일(이하 현지시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 21일 앨라배마주 라디오방송 WAPI의 '매트 머피 쇼'에서 한반도 상황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우리 군대를 보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작전태세에 들어갔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며 "이건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 우리는 한국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가. 우리는 한국을 돕는데 왜 한국은 우리를 돕지 않는가"라며 "미국은 모든 사람을 방어할 수는 없다. 한국은 충분히 부유한 나라로 미국이 방어해주는 것에 대해 보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대해 "업무와 관련해 텔레비전 4000대를 주문했는데 모두 삼성, LG, 샤프의 제품으로 한국에서 오는 것이다. 그들은 막대한 돈을 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는 "그는 미쳤거나 천재일 것이다. 그는 실제로 아버지보다 더 불안정하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21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선시티 유세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한국의 무임승차를 비판한 바 있다.

막말 논란의 주인공 답게 그의 한국 무임승차론에는 여기저기 오류가 발견된다. 한국은 그의 주장과는 달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에 따라 미국에 매년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의 말 중에는 일본 회사인 샤프를 한국 회사로 착각한 부분도 있다. /송병형 기자

태풍 '고니' 북상… 부산·규슈로

강원·영동 시간당 300㎜
남부지방은 밤에 그칠 듯

제15호 태풍 고니가 필리핀을 강타한 뒤 24일 오키나와 부근에서 계속 북상 중이다. 25일 일본 규슈에 접근한다. 부산을 비롯한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태풍 고니는 25일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규슈에 접근할 전망이다. 일본 기상청은 폭풍과 높은 파도에 대해 엄중한 경계를 당부했다. 폭우로 인한 토사 재해와 침수에도 경계를 당부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규슈에서는 25일에 걸쳐 맹렬한 바람이 불어 닥칠 위험이 있다. 예상되는 최대 풍속은 규슈 북부 35m(최대 순간 풍속 50m), 오키나와, 규슈 남부 30m(최대 순간 풍속 45m), 아마미 28m(최대 순간 풍속 40m)이다.

해상에서도 규슈는 24일부터 큰 파도가 일고 시코쿠와 긴키에서도 25일에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25일에 걸친 파도 높이는 오키나와와 아마미 12m, 규슈 북부 9~11m, 시코쿠 7m, 긴키 6m이다.

폭우는 서일본에서 24일 저녁 늦게부터 천둥을 동반하며 1시간에 5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25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예상 강우량은 모두 많은 곳에서 규슈 남부 180㎖, 오키나와와 아마미 150㎖, 규슈남부 120㎖가 될 전망이다.

태풍 고니는 25일 규슈를 지나 동해상으로 북상한다. 우리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비(강수확률 60~90%)가 내릴 전망이다. 제주도는 낮에, 충청남도와 남부지방(경상북도 제외)은 밤에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강원도 영동과 경상남북도,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0㎜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오키나와는 나하공항에서 일본항공 30편, 전일본공수 81편이 결항했다. /송병형 기자

'유신 긴급조치 면죄부'에 항소

민변, 대법 판결에 헌법소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24일 유신 시절 긴급조치 발령이 불법은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민변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은 헌재가 2013년 긴급조치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취지에 반한다"며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내용을 판결에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이므로 마땅히 그 심판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므로 대통령의 이런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해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헌재는 2013년 3월 "대통령 긴급조치 1호와 2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9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어 이 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없다.

그러나 민변 등은 이번 사례가 예외적으로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인 '법원이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해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헌재가 사법권력의 통제수단으로 그 제도적 취지와 실효성을 가짐에도 재판 헌법소원을 못하게 해 그 취지를 반감시킨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자체를 고쳐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으로는 긴급조치 피해자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가 지난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나섰다.

이들은 "이번 헌법소원이 국가배상 판결의 문제점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역할 및 지위 등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제도적 모색을 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metroseoul.co.kr

태풍 북상… 선박 대피 제15호 태풍 '고니'의 북상에 대비해 24일 오후 부산항에 선박이 대피해 있다. /연합뉴스

한일월드 대표, 렌털 미끼로 1000억 '꿀꺽'

피해자 1만 명 추정… 200여명 무더기 고소장

중견 정수기 업체인 한일월드 이영재 대표가 고객 200여명으로부터 피소됐다. 경찰 추정 피해자가 1만여 명, 피해 액수는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한일월드는 대당 1000만원에 육박하는 운동기기를 무료로 렌털해주겠다며 1만여명을 모집한 후 렌털비를 내지 않고 잠적해 뿔난 고객들이 무더기로 이 대표를 고소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일월드는 작년 5월부터 신상품 체험단 모집 명목으로 950만원 상당의 음파진동 운동기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홍보에 나섰다. 4년간 운동기를 렌트해 쓰면서 운동장면이 담긴 사진을 제공하거나 설문에 응하면 렌트비를 대납해줄 뿐만 아니라 4년 후에는 운동기 소유권도 넘기겠다는 것이다.

회사는 '금융리스 렌털'이라는 생소한 방식을 제시했다. 월 19만8000원씩 발생하는 할부금을 회사측이 현금으로 이벤트 참가자 통장에 입금하면 캐피털 업체가 이를 출금해가는 방식이었다.

이벤트에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1만400여명이 참가해 전체 계약 금액은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1년간은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난달 한일월드 측이 돌연 입금을 중단하면서 사단이 났다.

한일월드가 약속한 할부금을 입금해주지 않았지만 캐피털사는 피해자들의 통장에서 계속 돈을 빼가고 있다.

피해자들이 계약을 해지하려해도 한일월드와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다. 이들은 4년 계약을 한터라 앞으로 수백만원에 달하는 음파진동 운동기 잔액을 캐피털사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야 할 판이다.

이 회사 직원이자 피해자이기도 한 A씨는 "월급은 이미 3개월 체납됐고 운동기 할부금은 지난달부터 들어오지 않았다"며 "이 대표는 20일 직원들에게 '렌털 채권을 캐피털회사에 1명당 682만원에 넘겼고 받은 돈은 회사 운영비용으로 모두 썼다'고 말하고는 잠적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대표는 휴대전화를 꺼둔 채 잠적한 상태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도 이 대표에게 출석 통보를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표가 1992년 창립한 한일월드는 정수기 렌털사업으로 성장해 공기청정기, 비데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영역을 넓힌 중견 기업으로서 작년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연미란 기자

檢 '식품 범죄와의 전쟁'

구속수사 원칙 합동단속 벌금형으로 범죄수익 환수

매년 증가하는 식품 범죄에 대해 검찰이 칼을 빼들었다. 부정 식품 관련범죄로 인한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데에 대한 조치다. 2011년 2만1245명이었던 적발 횟수는 2012년 1만9271명, 2013년 2만6952명, 2014년에 2만3721명으로 줄지 않고 있다. 올 상반기에도 9835명이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대검찰청 형사부(안상돈 검사장)는 24일 오전 대검에서 전국 식품전담 부장검사 30여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식품 관련 범죄를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과 처벌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우선 주요 부정식품 사범은 한 번만 적발돼도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문적·상습적·지능적으로 부정 식품이나 인체에 해로운 식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대상이다.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로 표시해 식품을 팔다 적발되고도 5년 내 또다시 단속되면 판매 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엄정처벌하기로 했다.

유해식품 판매사범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죄수익을 특정하고 몰수나 추징 보전, 벌금형을 함께 구형해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한편, 탈루 세금은 국세청에 철저히 통보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넉 달간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부정 식품 사범을 특별 단속한다.

불량 계란이나 중금속에 오염된 중국산 고춧가루 등 유해한 식품원료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가 집중 단속대상이다. 검찰은 학교나 어린이집 급식에 위해식품을 납품해 어린이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도 중점적으로 수사한다.

또 인터넷 쇼핑 활성화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위해 식품이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식품 제조·유통행위 등도 집중 단속하고, 부정식품 제조·유통과정에서 공무원 유착 비리가 없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수원과 대전·대구·부산·광주에 중점 식품전담 수사부를 지정하고, 전국 53개청에 식품전담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부정 식품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연미란 기자 actor@

법무부, 주거지원 대상 확대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도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더 많은 범죄피해자가 새 보금자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 방침에 따라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대상 범위가 전치 2개월 이상의 중상해에서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로 확대됐다.

살인·강도·방화·강간 등 강력범죄 피해자는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범죄피해자 주거지원제도는 각종 범죄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가족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수혜자 수가 연 4300여명에서 8500여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2019년까지 스마일센터를 전국 18개 주요 지역으로 확대 설치하고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 스마일센터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심리치유 프로그램·임시거처 등을 제공하는 곳으로 2010년 서울을 시작으로 5개 광역시에 설치됐다. /연미란 기자

대검, 김훈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 음주운전 감찰

김훈(51)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음주운전으로 감찰을 받고 있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 전 차장검사는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돼 경찰에 입건됐고, 이 때문에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감찰 절차를 거쳐 김 전 차장검사에게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김서이 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한명숙, 이르면 내달 10일 교도소 수감

분류심사서 적용시설 결정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4일 국무총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구치소에 입감됐다. 수형자 분류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달 10일 교도소에 수감된다.

검찰은 당초 대법원의 선고 확정 하루 뒤인 지난 21일 입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한 전 총리 측이 국회의원직 상실에 따른 주변 정리와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형 집행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이날 집행이 이뤄지게 됐다. 현재 한 전 총리는 서울 구치소에 입감 중이다.

분류심사는 법무부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수형자 맞춤형 개별처우계획'에 따라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측정·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별도로 상담을 통한 개별 사안의 조사, 심리·지능·적성 검사 등 그 밖에 필요한 검사도 병행된다.

기존에는 분류심사, 직업훈련, 의료 등 관련 부서가 수형자 처우계획을 각각 진행했으나 재복역과 강력범죄자의 재범이 증가함에 따라 수형자에 대한 맞춤형 개별 처우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입감한 수형자가 심사 대상이며 검사 자료는 매달 10일 열리는 분류처우위원회에 회부돼 등급에 따라 수감될 교도소가 확정되는 구조다. 소장과 부소장, 과장 등 7인 이하로 구성된 위원회는 회부된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각 교정시설에 설치돼 있다.

변동이 없는 한 한 전 총리도 인성지능적성 검사 등 분류 심사를 거쳐 내달 10일 2년간 지낼 교도소가 확정될 전망이다.

법무부 분류심사과 관계자는 "분류심사를 위한 검사는 모든 수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뒤 매달 10일 분류처우위원회에 회부된다"며 "위원회는 심사 자료를 토대로 적용 시설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입감에 앞서 "결백하다. 굴복하지 않겠다"고 마지막 인사를 남긴 뒤 서울 구치소로 들어갔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휴업으로 텅빈 최전방 교실 4일 북한의 포격 도발 우려로 휴업에 들어간 강원 화천군 상서면 산양초교 교실이 텅 비어 있다. 선생님이 내일 수업 준비를 하며 교실을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 교과서 각주에 한자 병기 검토"

사교육 유발 방지 방안

초등학교 교과서 각주에 한자를 넣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사교육 유발 등을 막기 위해서다.

김경자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오후 충북 청주시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초등 한자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교과서에 한자를 수록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본문 안 한자어 옆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한자를 병기하는 방식, 교과서 날개나 각주에 한자를 제시하는 방식, 단원 말미에 주요 학습을 제시하면서 한자를 설명하는 방식, 그림과 한자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자연스럽게 한자에 노출시킨다고 할 때 병기된 한자와 관련해 사교육이 유발되지 않도록 평가를 하지 않는 방안 등 어떤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를 찬성하는 한자관련 단체 회원이 24일 오후 '초등학교 한자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가 열린 한국교원대학교 교원문화관 앞에서 한글단체가 든 팻말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당국이 규정을 통해 초등학생이 한자 시험을 보지 않게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초등학교 교과서의 적정 한자 수에 대해선 "300자에서 600자 중 어느 지점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어느 학년부터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중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 것인가도 결정해야 한다"며 한자 병기를 시작할 학년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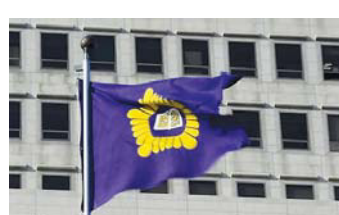
현재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도덕, 사회, 수학 교과서에는 일부 한자가 단원 전후에 보충심화학습이나 삽화 설명 등의 방식으로 병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가 제시할 방안을 토대로 다음 달 초등학교의 한자 활성화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

"망원경으로 보인다"… 法, 학교 20m옆 호텔 건축 안돼

학교 20m옆에 호텔 건축을 불허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건설시행사 대표 전모씨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학교 옆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씨는 강동구 천호동 모 중학교 출입문으로부터 125.57m,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47m 떨어진 자리에 21층짜리 관광호텔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당국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속한다며 계획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호텔 투숙객이 창문을 열거나 학생들이 망원경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면 학생들도 (객실) 내부의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다"며 "감수성이 예민하고 성에 처음 눈을 뜨기 시작하는 중학생들의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종로구 이화동 여자중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신축을 허가해달라는 소송에서 "학교 근처라 하더라도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건축을 허가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김서이 기자

혼인취소소송 언제 제기할 수 있을까

생활 법률

A(31·여)씨는 남편 B(33)씨와 결혼해 아들을 낳았지만 B씨가 도박을 해 별거를 했다. 별거 중이던 A씨는 결혼한 전력을 숨기고 C(32)씨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B씨와 이혼한 후 한달 만에 C씨와 정식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에게 또다시 불행이 찾아왔다. A씨가 전 남편 B씨와 아들을 버리고 C씨와 결혼했다는 내용의 투서가 C씨에게 전달된 것이다.

이에 화가 난 C씨는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A씨에게 협의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현재 이혼절차를 미루는 중이며 C씨는 법원에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상황일 경우 C씨가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혼인 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혼인 취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A씨가 결혼한 전력과 애가 딸려 있는 사실을 숨기고 C씨와 결혼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혼인적령 미달',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친족 간 혼인한 경우', '중혼인 경우',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결혼은 취소될 수 있다.

실제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두사람의 혼인을 취소하고 A씨는 C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C씨가 A씨에게 속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가명을 쓰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C씨를 속인 점 등을 감안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유선준 기자 rsunjun@

2015 House View

시장을 먼저 읽어라

달러자산에 투자하라.

달러자산에 투자하세요.
해외투자,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안정적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달러자산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야 합니다. 특히 기술과 혁신의 중심인 미국은 1년이상 장기투자에서 가장 유망합니다.

달러를 이동하세요!

달러도 연 2.0% 수익률 (3개월 예치시, 세전, 2015.04.06기준, 달러가치 하락시 손실 발생 가능)

대신증권 달러RP 특별판매

대상: 개인고객(신규/기존)
한도: 개인별 1만$ ~ 50만$
수익률:연2.0% (기본수익률 연0.9% + 추가수익률 연1.1%)
*3개월 이후, 가입시점의 수시 RP이율 적용

고객 감동센터 1588 - 4488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징, 수수료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님은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USD RP 입금액은 달러화 표시 외화증권에 투자되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판매회사 지급불능시 증권예탁결제원에 고객분으로 구분예탁된 유가증권(원금 105% 이상)을 보유 및 처분 가능) *USD RP는 환율변동에 따라 원화 환산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USD RP 수익률은 입금 시 당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단, 수익률 변경 이전 매수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까지 매수시 약정한 수익률을 적용) *USD RP에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USD RP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대신증권 영업점 또는 고객감동센터(1588-4488)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5-02943호 (2015-04-28 ~ 2016-04-27)

하반기 구원투수 될 디스플레이업종 최선호株는?

| 마켓인사이트 |

삼성전기·LG이노텍 꼽혀 하반기 이후 업황살아날 듯

올해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던 디스플레이 업종이 하반기부터 신규투자와 글로벌 생산능력 확대 등을 통해 실적 개선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디스플레이 업종의 주가는 최근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대표 종목인 LG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의 주가는 지난 19일부터 4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2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LG디스플레이 주가는 전일대비 1.65% 하락한 2만800원에 마감했다. LG이노텍도 전날보다 1.69% 내린 8만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기도 이틀째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들 주가가 최근 하락한 것은 대외적인 불안으로 코스피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상황에서 IT 수요 부진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올 3분기부터 뚜렷한 실적 개선세가 예상되는 만큼,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면서 "장기 성장성이 높은 종목에 주목해야 된다"고 진단했다.

권성률 동부증권 연구원은 "9~11월이 IT 산업의 최대 성수기로 가동률과 실적 개선이 가장 눈에 띄는 시기"라며 "연간 수익률을 보면 9~11월이 가장 수익률이 좋았고, 신모델 출시도 몰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 연구원은 ▲최악의 2분기보다 실적 개선 가능성 ▲어김없이 나타나는 하반기 IT 계절성 ▲텅텅 비어있는 수급 ▲역사적 최저 밸류에이션(평가가치)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등을 언급했다.

그는 "LG이노텍은 상기 4가지 조건 외에 차량부품의 성장성까지 가해져 지난 2분기 실적 부진에 따른 '분노의 매도'가 마무리되면 가장 빠른 반등이 기대된다"며 "LG디스플레이는 TV재고가 6월에 정점을 찍었고, IT용 패널 가격 하락세가 이미 8월부터 둔화되고 있어 주가의 마지노선을 지켜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삼성전기는 3분기 영업익 컨센서스(시장 평균 추정치)도 오를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김동원 현대증권 연구원도 "올 하반기 디스플레이 시장의 키워드는 '보급형 위주의 중저가 제품비중 확대'가 될 전망"이라며 최선호주로 삼성전기, LG이노텍을 제시했다. 중소형주 가운데선 한솔케미칼, 한솔테크닉스, 미래나노텍을 선호주로 꼽았다.

김 연구원은 "이들 업체들이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세를 보일 전망이지만,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8월 하순 TV패널 가격은 32인치를 제외하고 상순 대비 2~3% 하락하며 시장의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만 하반기 이후부터 업황이 다시 살아나 관련 업계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게 김 연구원의 분석이다.

그는 "글로벌 TV 패널은 8~10월에 연말 성수기(블랙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에 따른 대형 UHD TV 패널 출하증가로 가격하락 폭과 속도가 다소 완만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삼성TV 출하량 급증으로 부품업체들의 실적 개선 강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삼성전기, 한솔케미칼, 한솔테크닉스, 미래나노텍 등 삼성 TV 부품업체의 3분기 TV 부품 출하가 전분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4분기로 갈수록 부품업체 실적개선 강도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민지 기자 minji@metroseoul.co.kr

/유안타증권 제공

유안타證, 독자 브랜드 체크카드 출시

유안타 CMA+ 금리우대·캐시백 제공
유안타 Life+ 다양한 생활할인 서비스

유안타증권이 24일 최고 연 +5% 우대수익률과 생활밀착형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자 브랜드 체크카드인 '유안타 CMA+ 체크카드'와 '유안타 Life+ 체크카드'를 출시한다.

이번에 출시한 유안타증권 체크카드는 금리우대형인 '유안타 CMA+ 체크카드'와 생활할인형인 '유안타 Life+ 체크카드'이다. 고객 본인의 이용 패턴과 기호에 따라 선택해 발급할 수 있다.

'CMA+ 카드'는 CMA를 결제계좌로 쓰는 CMA 전용 체크카드로 기존 W-CMA의 기본 수익률에 체크카드 월 이용실적에 따라 캐시백 형태로 우대수익률을 추가 제공한다.

우대수익률은 결제계좌의 당월 CMA 잔고(월 평잔) 중 당월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해 연 +3%(월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사용시)에서 연 +5%(월 30만원 이상 사용시)이다.

특히 오는 10월 31일까지 'CMA+ 카드'를 발급 받으면 연말까지 연 +2%의 추가수익률을 제공해 최대 연 +7%의 우대수익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Life+ 카드'는 편의점에서 통신요금까지 다양한 생활밀착형 할인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카드로 CMA계좌는 물론 위탁계좌에서도 발급 가능하다.

이마트, CU 등 대형마트와 편의점 이용시 10% 할인을 비롯해 스타벅스, 커피빈 등 주요 커피전문점과 베이커리에서 10%, 프로야구 온라인 예매 20%, 소셜커머스 20%, CGV, 메가박스 등 영화 2000원, 이동통신요금 2000원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할인 항목별 월 할인한도와 전월 사용실적에 따른 1~3만원의 월 통합 할인 한도가 있다.

체크카드 출시 기념으로 10월 31일까지 'CMA+ 카드' 발급 고객에게는 연말까지 연 +2%의 추가수익률을 제공하고, 카드 발급과 사용 고객 중 10명을 추첨해 골드바(10g)를 증정한다.

/김민지 기자

중국·북한發 악재에 금융시장 '빨간불'

외국인 매도세 지속에 지수 급락… 원화가치 하락 우려

국내 금융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증시 폭락과 미국 금리 인상 우려로 약세를 면치 못했던 증시에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며 대내외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의 투매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오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6.26p(2.47%) 내린 1829.81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1800.75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코스닥은 13.72p(2.19%) 하락한 613.33에 장을 마감했다.

여기에는 중국 증시 폭락과 대북 리스크 확대로 인한 외국인 자금이탈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8.45% 떨어지는 등 폭락세를 보였다.

중국 증시가 하락하자 국내 대형주를 중심으로 거래하는 외국인의 매도 주문도 잇달았다.

이미 13거래일째 '셀 코리아'를 지속하고 있는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7229억원어치를 팔았다. 이는 지난 2013년 6월 21일(8009억원) 이후 최대 수준이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2980억원과 4001억원 상당을 사들였지만 지수 하락을 막지 못했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도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 우위로 전체적으로는 1809억원 상당 순매도로 집계됐다.

원화가치 하락 우려도 외국인의 자금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달러당 4.0원(0.33%) 오른 11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3년 10개월만에 장중 1200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과 북한발 악재에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며 국내증시에 빨간불이 켜졌다. /연합뉴스

"한국과의 금융시장 상관성이 가장 높은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관련 경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과 경기 상관성이 가장 높은 중국은 주식시장 폭락, 위안화 대폭 평가 절하, 경제지표 부진으로 국내 경기부진 우려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반도 내에서는 북한의 도발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외국인 자금이탈과 관련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높은 시점"이라며 "원화채권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포지션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북한 사태가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 경기의 경착륙 가능성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우리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여타 신흥국과 한국은 경제 여건과 상황에 대한 차이가 있다"며 "우리 경제의 차별성을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경우의 수에 대비해 시나리오를 짜고, 상황 전개 시 즉시 조치하는 대응 노력을 강화할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고 남북한 긴장관계 등 대내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금융 자회사 매각 계획 '시동' 건다

KDB산업은행

대우證·자산운용·캐피탈 보유주식 전량 매각 방침

KDB대우증권 등 산업은행 금융 자회사 매각 계획이 확정됐다.

KDB산업은행은 24일 이사회를 열고 대우증권과 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탈에 대한 매각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산은은 조속한 시일내 매각을 추진하되 매각가치 극대화와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한다는 기본방침 하에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할 계획이다.

대우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은 시장수요를 감안해 패키지 또는 개별 매각을 병행키로 했다. 산은캐피탈은 별도로 개별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산업은행은 KDB대우증권의 보통주 기준 지분 43%(1억4048만1383주)와 산은자산운용

이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이 매각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산업은행 제공

지분 100%(777만8956주), 산은캐피탈 지분 99.92%(6212만4661주)를 보유하고 있다.

산은은 매각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키로 했다. 또 은행 내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금융자회사 매각추진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이날 법률전문가인 신희택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매각 업무와 관련된 부문장 6명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와 함께 산은은 조만간 매각 자문사를 선정하고 조속한 시일내 매각을 종료할 예정이다.

매각주관사는 국내외 각 1개사며 회계·법률자문사 각 1곳을 선정키로 했다.

매각 예정가격은 매각자문사가 순자산가치, 계속기업가치, 상대가치를 감안해 본입찰 전까지 매각가치를 산정할 방침이다.

산은은 입찰을 통해 매각 자문사를 선정한 이후 실사와 시장조사 등을 거쳐 10월 초 주식매각 공고를 낼 계획이다.

한편 KDB생명은 소유주가 산업은행사모투자펀드(PEF)라 이번 매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대현 산업은행 정책기획부문장은 "이번 금융자회사 매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이사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금융자회사 매각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산은 M&A실은 매각자문사 선정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KEB하나은행장, 함영주 부행장 내정

두터운 신망과 소통 능해 銀결합 이끌 포용형 리더

함영주(59·사진)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 부행장이 초대 KEB하나은행장에 내정됐다.

하나금융그룹은 24일 통합 하나·외환은행장후보 추천을 위한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열고 통합은행장에 함영주 하나은행 부행장을 단독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함 내정자는 이날 통합추진위원회 추천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심의를 거쳐 단독후보로 결정된 뒤 이어 진행된 이사회 승인까지 받았다.

이에 따라 함 내정자는 오는 9월 1일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은후 취임할 예정이다.

앞서 임추위는 통합은행장 후보군으로 선정된 함영주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부행장을 비롯해 김병호 하나은행장, 김한조 외환은행장 등 3명에 대해 심의 절차를 진행해 왔다.

임추위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통합한 'KEB하나은행'의 화학적 결합을 통한 시너지 증대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후보를 심의했다"면서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 조직내 두터운 신망과 소통능력을 가진 함 후보가 통합은행의 화학적 결합을 이끌어 시너지를 증대시킬 적임자"라고 말했다.

1956년 충남 부여출신인 함 내정자는 강경상고와 단국대 회계학과를 졸업한 뒤 1980년 서울은행 입행으로 금융권에 첫 발을 들였다.

이후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에서 충남북영업본부장과 대전영업본부 부행장보 등을 역임했다.

그는 지난 2013년 충청영업그룹 대표로 취임한 이후 대전시 금고와 5개 구청의 금고를 따내며 영업통으로 불렸다. 또 지난해에는 세종시 2금고를 유치했다.

또 '지역사랑통장'을 출시하고 '1인 1통장 및 1사 1통장 갖기 운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본부중심의 전시주의적 업무 처리에서 탈피해 조직과 제도, 업무프로세스를 일선 영업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실사구시형 인물로 특유의 친화력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양 은행 노조와 직원들의 마음을 아우를 수 있는 포용의 리더십을 갖춘 덕장이라고 하나금융 측은 설명했다.

실제 시골촌놈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의 좌우명은 '낮은 자세로 섬김과 배려의 마음'으로 본부장 시절부터 매주 조깅과 산행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직원들과 격의없는 소통을 하기로 유명하다.

한편 김병호 하나은행장과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그룹 부회장을 맡아 국·내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백아란 기자

상반기 외국인, 5조4000억원 긁었다

올 상반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의 여파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신용카드 지출액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신한카드와 한국문화정보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액은 5조4000여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1.6% 증가한 규모다. 다만 작년 한해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액 11조원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매년 증가추세던 외국인 지출액이 올 상반기에 기대 이하인데는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 영향이 컸던 것으로 신한카드는 분석했다.

실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는 전년동기 대비 22% 증가 추세였다. 하지만 메르스가 극성이던 6월 한달은 지난해 6월 대비 35% 급감하면서 상반기 증가폭을 둔화시켰다.

같은 기간 외국인 입국자수도 전년 동월 대비 41% 감소했다. /백아란 기자

‘더블조망권’ 아파트, 가격도 인기도 ‘더블’

단일조망보다 매매가 두 배
중견업체 단지도 청약 몰려

자연환경 조망권이 아파트 분양의 새로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신도시나 택지지구 분양이 증가하면서 두 곳 이상의 자연 경관을 보유한 ‘더블조망권’ 아파트의 인기가 타 단지보다 높아지고 있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화갤러리아포레’의 전용 170㎡ 매매가는 35억원에 달한다. 이 아파트는 한강과 서울숲 조망이 가능한 대표적인 더블조망권 프리미엄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 아파트의 거래건수는 24건으로 지난해 거래된 30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량(78건)의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반면 인근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더샵스타시티’의 전용 177㎡와 ‘광진트라팰리스’ 전용 169㎡의 매매가격은 각각 16억5000만원, 13억5000만원으로 한화갤러리아포레의 절반 수준이다. 이들 단지는 한강 조망권만 갖춘 단지다.

아이에스동서가 지난 5월 공급한 ‘창원 자은3지구 에일린의 뜰’(왼쪽)과 한화건설의 한화갤러리아포레’ 조감도. /각사 제공

최근 아파트 청약에서도 더블조망권 아파트의 인기는 높다.

중견건설사인 아이에스동서가 지난 5월 공급한 ‘창원 자은3지구 에일린의 뜰’은 1순위 청약경쟁률이 22.3대 1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이 완판됐다.

이 아파트는 중견업체가 공급한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남해바다와 불모산 조망이 가능한 더블 조망권을 보유하고 있다.

인근 조롱산 단일 조망권을 보유한 현대건설의 ‘창원감계힐스테이트2차’의 경우 1순위 청약경쟁률은 ‘창원 자은3지구 에일린의 뜰’의 절반 수준인 9.6대 1에 머물렀다.

조망권에 대한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서울의 동별 아파트 전용면적 1m²당 평균가격(100채 이상 단지 기준)을 조사한 결과 가장 비싼 동 1, 2위는 강남구 압구정동(1385만 원)과 서초구 반포동(1339만원)이었다. 이는 10년 전 1, 2위가 명문 학군이던 개포, 대치동이었던 것과 대조된다.

하반기에도 더블조망을 확보한 단지가 분양될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은 다음달에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의 ‘속초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속초해수욕장이 직선거리 100여m로 가깝고 청초호가 인접해 바다와 호수 조망이 가능하다.

현대건설이 다음달에 서울의 금호20구역을 재개발해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금호’도 응봉산과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포스코건설은 오는 10월에 남해와 장산 조망권을 갖춘 ‘해운대 엘시티’를 공급할 예정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수요자들이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조망권에 대한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더블조망권 아파트의 경우 타 단지보다 분양가격이 높은 만큼 수요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32

SK건설은 22일 터키 이스탄불 현지에서 유라시아 해저터널 관통 기념식을 개최했다. SK건설 현장 구성원과 발주처 관계자들이 해저터널을 관통한 터널굴착장비(TBM)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건설 제공

SK건설, 유라시아 해저터널 관통 성공

보스포러스 해협 3.34㎞ 구간

SK건설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터키 유라시아 해저터널 관통에 성공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착공한 이후 16개월 만이다.

SK건설은 22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 현지에서 유라시아 해저터널 관통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총리 등 터키 정부와 공사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관통된 곳은 접속도로를 포함해 총 연장 14.6㎞ 중 보스포러스 해협 3.34㎞ 해저구간이다. 터널굴착장비(TBM)를 활용한 이번 공사는 단면 지름이 아파트 5층 높이와 맞먹는 13.7m에 달한다. 총 길이는 120m, 무게는 3300t에 이른다.

특히 공사 구간은 최고 수심 110m에 달하고 모래·자갈·점토가 뒤섞여 쌓인 무른 충적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고난위 기술이 필요했다.

SK건설은 해저구간 굴착이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공사진행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유라시아 해저터널 공정율은 약 62% 수준이다. SK건설은 오는 2017년 3월까지 왕복 4차선의 복층 유라시아 터널을 준공할 예정이다. 이 공사가 완공되면 평균 12만대의 차량이 해저터널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무 SK건설 유라시아 해저터널 현장소장은 “해저지층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만큼 최첨단 모니터링 장비를 24시간 가동해 TBM 굴진방향의 지질상태를 꼼꼼히 체크하며 진행했다”며 “동시에 터널 내부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한 차수그라우팅 작업까지 수행했기 때문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부산 최고학군 동래구 ‘랜드마크’ 우뚝

한화 ‘동래 꿈에그린’
동래·사직고 등 명문학군
내년 동해남부선 개통예정
부산 핵심권역 이동 수월

한화건설은 오는 9월 부산 동래구 낙민동 133-3 일원에 ‘동래 꿈에그린’을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49층, 4개동, 전용면적 84㎡ 총 732가구 규모다. 약 14㎞ 규모의 온천천 시민공원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동래고, 사직고, 동래여고 등 동래구 내 명문학군이 조성돼 있다.

부산지하철 4호선 낙민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다. 1·4호선 환승역인 동래역, 1·3호선 환승역인 연산역도 가깝다. 복선전철인 동해남부선의 동래역(2016년 개통 예정)과 접해 있어 해운대~센텀시티~동래~부산시청을 잇는 부산 핵심권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아파트는 4베이(Bay), 판상형으로 설계됐다. 공간 활용이 용이한 넓은 서비스면적이 제공되며, 채광과 통풍도 뛰어나다.

‘동래 꿈에그린’ 투시도. /한화건설 제공

강진혁 한화건설 분양소장은 “부산 최고학군인 동래구에 위치하며 교통, 생활환경, 브랜드 모두가 갖춰져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며 “부산 동래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서 진정한 프리미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홍보관은 해운대구 센텀시티 내 센텀큐빌딩 2층에 위치하고 있다.

견본주택은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129-7에 마련될 예정이다. 분양문의: 1899-6400

/김형석 기자

G4, 뒷판 가죽 말썽… LG '애물단지' 전략?

천연가죽 내구성 도마 올라
3분기 실적 악영향 우려

LG전자의 전략형 스마트폰 G4의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 판매량이 당초 기대를 밑돌고 있는 가운데 품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동안 G4를 앞세워 스마트폰 사업을 전개해야 하는 LG전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24일 폰아레나 등 해외 정보기술(IT) 매체에 따르면 G4의 천연가죽 후면 커버 내구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G4의 천연가죽 후면 커버는 사용자의 주머니 속에서 옷감과의 마찰로 인해 모서리 부분이 쉽게 닳아 변색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은 후면부와 접합부에서도 가죽이 해어지기도 했다.

LG G4의 천연가죽 후면 커버. /LG전자 제공

천연가죽 후면 커버는 카메라와 함께 G4의 주요 마케팅 포인트다. LG전자는 '천연 가죽 커버를 만드는데 12주간 제작 공정이 소요되고, 장인정신이 깃든 핸드메이드 작업도 병행된다'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LG전자가 기대했던 '아날로그 감성'보다는 내구성 등의 문제점이 더 부각되는 모습이다.

LG전자 관계자는 "(G4의 후면 커버)는 가죽 제품이다. 가죽은 닳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서비스 규정이 있고, 사용자 과실 여부에 따라 서비스센터에서 보고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G4는 출시 초기부터 우려의 시선이 쏟아졌다. 지문 인식 기능 부재 등 경쟁 제품에 비해 사양이 뒤지고, 가격경쟁력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터치스크린 인식 문제와 천연가죽 후면 커버 내구성까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LG전자의 휴대전화 사업을 맡고 있는 MC사업본부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 2억원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G4에 대한 마케팅 투자비용 증가가 수익성 하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만큼 LG전자가 G4에 역량을 집중했다는 의미다.

LG전자는 3분기에 G4를 중심으로 프리미엄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는 등 매출과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G4의 품질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LG전자 휴대폰 사업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G4의 판매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3분기 실적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LG전자는 삼성전자·애플과 달리 3분기에 전략형 스마트폰 출시 계획이 없다. 10월에 프리미엄 패블릿 '슈퍼폰 F 시리즈'를 출시할 예정인 LG전자는 당분간 G4를 중심으로 휴대폰 사업을 꾸려야하는 상황이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무선충전·S펜·삼성페이… 갤노트5, 직접 써 보세요"

체험 행사 '노트5 로드'
코엑스몰서 30일까지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5' 출시를 기념해 대규모 소비자 체험 행사 '노트5 로드'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일부터 시작돼 3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갤럭시 노트5'만의 차별화된 장점인 디자인, 그립감, S펜, 무선충전, 삼성 페이 등 다섯 가지 주제의 체험 부스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각 체험 부스를 방문해 미션을 수행하며 '갤럭시 노트5'의 다양한 혁신 기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노트5 클래스'에 참여한 캘리그래퍼 공병각(왼쪽부터), 세프 샘킴,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이 '갤럭시 노트5'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는 5개의 체험 부스를 모두 방문해 미션을 수행한 소비자들에게 매일 선착순으로 에버랜드 티켓을 제공한다.

또한 포토존에서는 '갤럭시 노트5'로 드로잉한 사진을 출력해 종이 액자와 함께 증정한다. S펜으로 색을 입혀 완성하는 컬러 드로잉 엽서 체험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한편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일루셔니스트 이은결, 캘리그래퍼 공병각, 셰프 샘킴은 '갤럭시 노트5'의 기능을 이용한 '노트5 클래스'를 진행했다.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는 '노트5 로드'의 자세한 내용은 캠페인 사이트(www.samsung.com/sec/galaxynote5/note5road)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은정 기자 eunj71@

24일 서울 마포구의 공덕역 주변에서 SK플래닛 사내 홍보 모델들이 'T맵 대중교통' 서비스 다운로드 수 400만 돌파를 알리고 있다. /SK플래닛 제공

T맵 대중교통, 400만 다운로드 돌파

SK플래닛
하루 평균 20만명 이용

SK플래닛의 대중교통 길안내 서비스 'T맵 대중교통'이 출시 1년여 만에 다운로드 수 400만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T맵 대중교통은 13년간 축적된 T맵의 교통정보 분석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지난해 9월 새롭게 출시된 서비스로 누적 다운로드 수 403만, 월 이용자 수 200만, 평균 일 이용자 수 20만을 돌파했다. 또 출퇴근 시간대 사용자 비중이 60% 이상을 기록하며 대중교통의 효율적 길안내 정보 제공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서비스는 요일과 시간대별 실시간 교통정보를 기반으로 버스, 지하철, 택시, 도보의 최적 경로와 예측 소요시간·금액 등의 정보를 안내하고 사용자 위치와 시간을 계산해 실시간 하차·출발·환승 알림까지 제공한다. 또한 장소에 상관 없이 미리 설정해 놓은 위치로 대중교통 경로를 안내해 주는 '집으로'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는 전국단위 시내버스와 지하철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구, 울산, 광주, 대전 지역의 실시간 버스 도착정보를 반영해 안내하고 있다. 수도권 광역버스의 빈자리 정보 안내 기능까지 새롭게 추가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

김수현의 힘… 제주항공, 온라인 직판 고공비행

2년새 13.6%포인트 증가
해외마케팅 성과 가시화

제주항공의 한류스타를 활용한 해외마케팅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제주항공은 해외 취항지에서 브랜드에 인지도와 선호도 등을 가늠할 수 있는 해외 온라인 직접판매(홈페이지, 모바일 웹/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판매) 비중이 2013년 5.8%에서 지난 7월말 기준 19.4%로 13.6%p 상승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내외를 합한 직접판매 비중도 2013년 27.2%에 올해 41.5%로 14.3%p 올라갔다.

올해 초 한류스타 김수현을 모델로 선정한 제주항공은 2012년부터 인기 아이돌 그룹과 배우를 잇달아 모델로 기용하고 있다.

배우 김수현씨가 자신의 사진이 랩핑된 제주항공 여객기 앞에서 브이자를 그리며 환하게 웃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보인 곳은 중화권이다.

2013년 8.8%에 그쳤던 중국에서의 온라인을 통한 직접판매 비중은 올해 19.4%로 10.7%p 올랐다. 홍콩 역시 2013년 12.4%에서 올해 28.1%로 2배 이상 비중이 상승했다.

동남아시아 지역도 0.6%에서 7.0%로 눈에 띄게 온라인 직접 판매 비중이 올라갔다.

/이정필 기자 roman@

LG 'G패드 Ⅱ 10.1'
내달 4일 獨서 공개

LG전자는 오는 9월 4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 2015'에서 프리미엄 태블릿 'LG G패드 II 10.1'(사진)을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G패드 II 10.1'은 초슬림 베젤로 화면 몰입감을 극대화 했다. 현재 출시된 10.1인치 태블릿 가운데 베젤이 차지하는 면적이 가장 작고, 후면은 헤어라인 공법을 적용한 메탈릭 스킨 디자인이 적용됐다.

LG전자는 LTE와 Wi-Fi 두 가지 버전을 9월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한국 시장에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조한진 기자 hjc@

조선 빅3 노조, 대규모 적자에도 파업 강행하나

노조연대 동시파업 결의 하반기 영업실적도 먹구름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올해 상반기 회사의 대규모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동시파업을 결의했다.

하반기 실적 전망도 밝지 않은 가운데 조선업계 빅3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팽배한 상황이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올 상반기 매출 24조1742억원에 영업손실 3633억원, 당기순손실 3675억원의 실적을 냈다. 2013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7분기 동안 이어진 적자다.

전년 상반기에는 매출 26조3322억원에 영업손실 1조2926억원, 당기순손실 7075억원을 올렸다.

대우조선해양 LNG선.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52조5824억원에 영업손실 3조2494억원, 당기순손실 2조2060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은 상반기 매출 4조493억원에 영업손실 1조5218억원, 당기순손실 1조1441억원을 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38.06% 줄고 영업손실은 15배, 당기순손실은 17배 넘게 악화된 규모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매출 12조8790억원, 영업이익 1830억원, 당기순손실 1473억원을 낸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 대우조선해양은 상반기 매출 6조1362억원에 영업손실 3조832억원, 당기순손실 2조463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23.52% 줄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832억원, 708억원에서 대규모 적자로 돌아섰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매출 16조7862억원, 영업이익 4711억원, 당기순이익 329억원을 거뒀다.

빅3의 올 상반기 영업손실은 5조원에 육박한다.

이렇듯 3사가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이들 노조를 주축으로 하는 조선업종노조연대는 9월 9일 공동파업을 결의했다. 업계는 조선사들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동결을 제시한 데 따른 대응 조치인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2월 구성된 조선업종노조연대에는 빅3 노조와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성동조선해양, 한진중공업, STX조선, 신아SB 등 금속노조 소속 조선소 노조가 참여 중이다.

국내 조선사업장 노조의 첫 동시파업이 우려되는 가운데 하반기 영업실적 전망에도 먹구름이 드리웠다.

김현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조선 3사의 올해 선박·해양 수주액은 전년 대비 10.5% 감소한 293억 달러로 전망한다”며 “조선과 해외 건설의 수주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유가와 대외환경이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년 대비 조선 3사의 선박 수주는 9.6% 감소, 해양플랜트는 13.1% 감소가 예상된다”며 “입찰 진행 중인 프로젝트 중 50%가 발주됨을 가정해도 올해 조선 3사의 신규 수주는 2013년 수주액의 60~65%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정필 기자 roman@metroseoul.co.kr

24일 한일금속공업에 방문한 한국지엠 세르지오 호샤 사장(가운데)과 제임스 김 최고운영책임자(왼쪽)가 한일금속공업 관계자(오른쪽)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국지엠 호샤, 품질 파트너십 강조

2차 협력업체 방문

세르지오 호샤 한국지엠 사장이 24일 인천, 경기 지역에 위치한 2차 협력업체 한일금속공업㈜과 ㈜에이엔피 크리비즈를 방문했다.

호샤 사장은 제임스 김 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COO), 에디발도 크레팔디 구매부문 부사장과 중소 협력사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그는 “완벽한 품질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위 부품 하나하나의 완벽한 품질이 바탕 돼야 한다”며 “한국지엠이 그동안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 중소 협력업체들의 뛰어난 품질 경쟁력 때문”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더 넥스트 스파크 등 하반기 신차들의 판매가 본격화되는 만큼 앞으로도 1차는 물론, 2차 중소 협력업체들과 지속적인 상생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최고 품질의 제품을 국내외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신형 스파크 등 경소형 차량에 장착되는 가솔린 엔진의 부품을 공급하는 한일금속공업의 박광순 사장은 “2차 협력사에 대한 한국지엠의 깊은 관심에 감사하다”며 “최고 품질의 부품을 적기에 공급해 쉐보레 신제품들의 성공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지엠은 현재 300개 이상의 1차 협력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고 있다.

2차 협력업체를 포함하면 3000여개 업체에 이른다.

한국지엠은 호샤 사장이 지난해 2월부터 구매부문 등 관련 부문 임직원들과 함께 인천, 대구 등 전국 각지의 2차 협력사들을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정필 기자

현대 엑센트, 美 전측면 충돌시험 ‘낙제점’

투싼·스포티지 ‘취약’ 평가 싼타페 등 4종은 ‘미흡’

미국에서 시판되는 현대·기아차 차종 중 엑센트, 투싼(사진), 스포티지 등 3개 차종이 정면 일부를 들이받는 전측면 충돌(스몰오버랩) 시험에서 최저 등급을 받았다.

싼타페·벨로스터·K3(미국명 포르테)·프라이드(미국명 리오)의 경우 세 번째 등급인 ‘M’(Marginal·미흡) 등급에 그쳤다.

24일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에 따르면 미국에서 시판 중인 현대·기아차 17종에 대한 충돌 시험 결과 현대차 엑센트와 투싼, 기아차 스포티지는 모두 전측면 충돌 시험에서 최저 등급인 ‘P’(Poor·취약)등급을 받았다.

전측면 충돌 시험은 시속 64㎞로 달리는 차의 운전석 쪽 전면 25% 부분을 단단한 장벽과 충돌시켜 안전도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IIHS는 정면, 측면, 지붕 강도, 머리받침·좌석 등 4개 부문에 대해 충돌 시험을 해오다가 교통사고 사망자의 25%가 국소부위 충돌에서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2012년 전측면 충돌 시험을 추가했다.

전측면 충돌 시험 결과 엑센트는 운전자 생존에 필요한 공간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다.

시험용 인형(더미)의 머리와 상체가 왼쪽으로 쏠려 에어백과 거의 접촉하지 못한 채 계기판에 부딪혔으며, 왼쪽 다리와 엉덩이에 부상을 입을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싼과 스포티지도 이 부문에서 유사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IIHS는 전측면 충돌 시험에서 A등급 이상, 나머지 항목에서 모두 G등급을 획득한 차를 ‘가장 안전한 차’로 지정한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인증을 받은 전방 추돌방지 시스템까지 탑재하면 ‘가장 안전한 차 플러스’ 호칭을 부여한다. /이정필 기자

토요타, 하이브리드 글로벌 누적판매 800만대 돌파

토요타자동차는 지난달 말까지 하이브리드 모델 글로벌 누적 판매 대수가 800만대를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하면 804만대 누적 판매를 달성했다는 설명이다.

토요타는 ‘친환경’을 회사경영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정했다. ‘친환경 차량을 보급함으로써 환경에 공헌한다’는 신념 아래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에 힘써 왔다.

1997년 12월에 세계 최초의 양산 하이브리드 승용차 ‘프리우스’를 출시한 이래 꾸준한 판매를 이어왔다.

토요타-렉서스 하이브리드 모델

지난해 9월말에 700만대를 돌파한 후 약 10개월 만에 누계 판매 800만대를 달성했다.

토요타는 최근 1년 동안에도 신형 에스콰이어(작년 10월 출시), 신형 시엔타(올해 7월 출시)를 비롯한 3차종에 새롭게 하이브리드 모델을 투입했다.

현재 하이브리드 승용차 30개 모델,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 1개 모델을 90개 국가·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다.

토요타는 자체 조사를 통해 2015년 7월말까지 판매한 하이브리드 차의 CO_2 배출 억제 효과(시장 주행 대수×주행거리×연비(각국 실주행 연비)×CO_2 환산 계수)와 가솔린 소비 억제량은 차량 사이즈와 동력 성능이 동급인 가솔린 엔진차와 비교해 각각 약 5800만톤과 약 2200만㎘(킬로리터)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정필 기자

(주)푸른친구들 대표 양윤형 /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38 성은빌딩 8층 / 02-3477-6235 / 통신판매업신고증 제 관악-0360호 / hyginus@naver.com

“살 붙었네. 비결이 뭐야?”

발효콩단백질로 근육 채우고, 9가지 통곡물로 영양 흡수

이제 삼시 세 끼 만으로는 체중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
탄력 잃은 허벅지, 가느다란 팔뚝이 걱정이라면 당장 근육부터 채울 것.
단백질과 균형 잡힌 영양을 동시에 ‘흡수’시키는
획기적인 체중 증강식의 이름은 ‘하루콩력’.

빠르게 흡수되는 살 붙는 해법

살이 점점 빠진다면 단백질 흡수가 시급하다. 40대 이후부터 매년 1%씩 근육이 빠져나가는 데 근육감소가 체중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 근육을 채우는 영양소는 오직 단백질 뿐. ‘하루콩력’은 국내산 3종 콩을 특허 받은 저분자 발효공법으로 미세하게 분해해 체내 흡수력을 혁신적으로 높였다. 이로써 나이를 먹어도, 소화력이 약해도 누구나 양질의 발효콩 단백질을 속 편하게 흡수시킬 수 있게 됐다.

‘하루콩력’은 3대 영양소와 비타민, 무기질 등을 고루 갖춘 완전 영양균형식이다. 레시틴, 이소플라본, 안토시아닌, 불포화 지방산 등도 풍부하다. 유전자 변형이나 방부제 걱정 없는 국산 콩만을 사용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하루콩력’을 꾸준히 곁에 두라. 탄탄하고 보기 좋은 몸이 현실이 된다.

하루콩력 **제품구성** 30g×30포
섭취방법 1일 1~3회, 1회 1포씩 물이나 우유 또는 음료 200ml에 풀어서 드십시오.
가격 • 1박스 ₩119,000 • 3박스 ₩357,000 → ₩325,000
• 5박스 ₩595,000 → 520,000
※대량 주문시 추가 할인혜택

제품문의 **02_3477_6235** www.**ilove62**.com

당일 구매고객 특별 행사
오늘 3박스 이상 전화 구매하시면 고강도 복합 효소 **‘효소력’ 5일분**(15포)을 추가로 드립니다.

살이 안찌는 건 ‘흡수력’이 약하기 때문!

누구에게나 빠르게 흡수되는 ‘하루콩력’

- 흡수 빠른 단백질양이 발효 전 콩의 7.5배, 소고기보다 월등
- 근육 감소 막는 핵심 영양소, 류신(Leucine)이 발효 전 콩의 28배
- 한국영양학회 권장, 탄수화물 · 지방 · 단백질의 이상적 밸런스
- 불포화 지방산 풍부, 육류 섭취 전후에 먹으면 좋아
- 일주일 만에 기력 생겨, 한 달 이상이면 탄탄하게 살 붙어

푸른친구들 발효의 힘으로 당신 몸을 지켜줍니다 | 제품문의 | 공휴일 상담 가능 **02_3477_6235** | www.**ilove62**.com

국내 발효분야 권위자, 계명대 **정용진** 교수.

애플워치, 레포츠와 찰떡궁합… 통화는 불편

IT꼼꼼리뷰 | 애플워치 |

디자인 좋지만 가격 부담 레포츠관련 활용도 높아 헬스기능 실행 7시간 사용

애플의 스마트워치 '애플워치'가 국내에 정식 출시된지 2개월 가량 흘렀다. 현재 애플워치의 성공 여부는 판단하기 힘들다. 하지만 이미 애플워치를 구매해 사용하고 있거나 제품 구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에 애플워치를 2주간 사용한 장단점을 추려봤다.

◆ "디자인 잘 나왔는데 값 비싸"

애플의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사용자의 상당수가 애플워치의 디자인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줬다. 특히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시계줄을 바꿀 수 있는 장점도 갖추고 있다. 애플이 공식적으로 판매를 시작한 시계줄의 종류는 스포츠밴드와 가죽, 금속으로 만들어진 총 6가지 제품이다. 스포츠 밴드는 다양한 색깔로 출시됐다. 시계 몸체와 크기를 고르고, 시계줄까지 고르면 자신의 스타일과 가장 잘 어울리는 애플워치를 연출할 수 있다.

다만 가격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쟁업체의 제품은 30만~40만원대가 주를 이룬다. 반면 애플워치는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스포츠 38mm 제품이 43만9000원이다. 만약 일반 애플워치 바디에 가죽 밴드를 조합하면 가격이 79만원으로 높아진다. 스테인리스 소재의 링크브레이슬릿 밴드를 선택하면 110만원대로 가격이 껑충 뛴다. 여기에 자신의 기분에 따라 제품을 사용하려면 별도의 시계줄을 추가로 구매해야 한다. 웬만한 명품 시계값에 육박한다는 것이 부담이다.

◆ 다양한 레포츠 활용 적합

야외 레포츠나 평소 건강 관리에 관심이 높다면 활용할 부분이 많다. 애플워치의 운동앱을 실행시키면▲실외 싸이클 ▲실외 걷기 ▲실외 달리기 ▲일립티컬 ▲로잉 운동 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아이폰과 연동돼 가속도와 칼로리 소모량, 심박수 등을 정리한다.

애플워치를 시험하기 위해 로드

싸이클로 서울 여의나루역에서 강원 춘천까지 130㎞ 가량을 달리며 테스트를 진행했다. 현재 이동 속도와 칼로리 소모량, 이동거리, 소요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초행길인 경우 아이폰에서 미리 경로를 선택하면 좌·우회전시 애플워치가 진동으로 길을 안내해 준다. 가속도와 나침반, 심박, GPS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배터리 소모는 감수해야 한다. 평상시 완충상태에서 이틀동안 사용이 가능하지만 실제 완충 상태에서 헬스 기능을 실행한 결과 7시간 가량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더욱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헬스 기능 실행 시 자동으로 적용되는 심박 체크 기능을 비활성화 할 경우 2시간 가량 더 사용할 수 있다.

아이폰과 애플워치를 연동한 상태에서 몇차례 운동을 한 후 사용자의 운동량이나 운동 패턴 등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기어와 거의 유사하다.

애플워치의 자체 스피커를 이용해 실내에서 통화할 경우 큰 불편함이 없다. 하지만 소음이나 주변 사람이 많은 외부에서 사용하기는 어렵다. 간단한 통화가 아닐 경우 휴대폰으로 통화하는게 좋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판교 사옥, 놀이터 같은 일터로 변신"

SK 주식회사 C&C

직원 위한 휴식처 제공

SK주식회사 C&C는 구성원의 창의와 혁신을 끌어내기 위해 경기도 판교 사옥을 자연 쉼터, 오락실, 편의점, 창의공간이 망라된 놀이터 같은 일터로 조성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교 사옥은 SK㈜와 합병한 SK C&C의 정보기술(IT) 서비스 개발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서비스 등 미래의 먹거리 사업을 책임지는 곳으로 약 2100명의 IT인프라·시스템 전문가, 신기술 개발자들이 포진하고 있다.

SK주식회사 C&C는 판교 사옥 2개동의 각 6층과 7층의 대형 복합 공간을 구성원들이 업무 중간에 휴식을 취하고, 기분을 전환하고, 자유롭게 사고함으로써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로 꾸몄다.

캠퍼스 곳곳에는 자작나무와 자갈길이 갖춰진 쉼터를 조성해 직원들이 업무 틈틈이 자연의 상쾌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직원들이 스

24일 경기 성남시의 SK주식회사 C&C 판교캠퍼스 '창의 공간'에서 사내 구성원들이 최신 IT 기기를 체험하고 있다. /SK주식회사 C&C 제공

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농구 게임부터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펌프, 보드게임 등까지 망라한 오락실도 마련했다.

팀장이 팀원들에게 간식을 사주는 공간인 '팀잘먹'(팀장님 잘 먹었겠습니다) 편의점과 IT 기업답게 구글 글라스, 3차원(3D) 프린터, 드론 등 최신 IT 기기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새로 갖췄다.

최신식 음향 시스템과 영화관용 빔프로젝터, 방음설비 등을 구비한 판교 캠퍼스 1층 드림홀에서는 가끔 구성원들을 위한 영화도 상영된다.

/정문경 기자

LGU+, 스마트홈 서비스 고객 1만명 가입

'IoT@홈' 하루 400명 신청 열림감지센서 서비스 인기

LG유플러스는 지난 7월 선보인 가정용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인 'IoT@홈'이 하루 평균 400명이 신청해 출시 3주만에 고객 1만 명을 모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통신사에 관계없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과 스마트폰에서 '불꺼', '가스 잠궈', '문열어' 등의 다양한 음성명령이 가능해 실생활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열림감지센서, 가스락, 스위치, 에너지미터, 플러그, 허브 등의 6종을 지난달 출시한데 이어 집안의 플러그 전원을 제어해 전기를 절감해주는 IoT플러그를 지난 13일 선보였다. IoT 플러그는 출시 1주일만에 1500명이 신청했다.

가장 인기있는 서비스는 창문이

24일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에서 사내 홍보 모델들이 LG유플러스 스마트홈 서비스 'IoT@홈' 가입자 1만명 돌파를 알리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열리면바로 스마트폰으로알려주는 열림감지센서로 나타났다.

열림감지센서는 전체 신청고객의 절반 가량이 선택해 보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성별로는 여성, 나이대로는 30~40대의 선택이 가장 높았다.

또 스마트 폰으로 집안의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 'IoT 스위치'는 두 번째로 가입률이 높았다. 전체 신청 고객 중 이 서비스를 선택한 고객은 전체의 30%를 넘어섰다. 이 서비스는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20~30대의 남성들이 가장 많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서는 집안의 전기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누진세 구간까지 예측을 해주는 에너지미터와 가스락 순이다.

/정문경 기자 hm0108@

LGU+, 2015 K-디자인 어워드 최고상 수상

LG유플러스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된 '2015 K-디자인 어워드' 시상식에서 유플러스tv G 4K UHD의 GUI가 커뮤니케이션 분야 최고 성적인 '골드'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K-디자인 어워드는 전 세계 26개국에서 총 1038개의 작품이 출품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LG유플러스의 유플러스tv G 4K UHD는 심사기준인 심미성을 비롯해 희소가치와 컨셉 전달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인 맞춤형 모바일 비서 서비스인 'U스푼' 역시 이번 시상식에서 '위너(Winner)'를 받았다.

시상식은 국내에서 주최하는 국제 디자인 공모전으로 제품, 커뮤니케이션, 운송, 공간, 서비스의 총 다섯개의 분야로 나눠져 있다. /정문경 기자

후스콜 '보이스피싱과 전쟁' 경찰청과 피해방지 캠페인

네이버 자회사 캠프모바일이 제공하는 글로벌 스팸 차단 어플리케이션 후스콜이 경찰청과 함께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캠페인을 올해 연말까지 공동 진행한다.

후스콜과 경찰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목소리와

주요 수법들, 실제 피해 사례를 담은 동영상을 공개한다. 후스콜은 7억여 건의 스팸 전화번호 DB를 보유하고 있어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포함한 스팸번호 식별과 차단에 유용하다.

후스콜은 대만, 홍콩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높은 인지도와 점유율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대만, LG전자, 중국 인터넷 보안업체 치타모바일 등 글로벌 사업자들과도 제휴를 맺고 있다.

이람 캠프모바일 대표는 "앞으로도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1위 스팸 전화 식별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이용자들의 사용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국민연금, 1조원대 이상한 투자

홈플러스 매각 입찰 참여 인수 투자금 1조원 안팎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뉴시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이 24일 홈플러스 매각 본입찰에 뛰어든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국민이 조성한 공적자산인 국민연금기금 약 1조원을 인수 투자금으로 약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홈플러스는 실적 부진에 올 초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각종 소송 문제, 의도적인 장부가치 훼손, 노사 갈등 등으로 시장의 평가가 좋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매각 측인 테스코그룹이 파운드화로 입찰 가격을 제시하라고 요구해 향후 원화 약세 현상이 심화되면 환차손의 부담도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테스코그룹과 홈플러스 매각 주관사인 HSBC 증권이 이날 실시한 본입찰에 MBK파트너스가 국민연금과 캐나다 연기금, 싱가포르테마섹 등 연기금을 끌어들여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글로벌 사모펀드인 어피니티 에쿼티파트너스와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뛰어 들었다.

미국 사모펀드 칼라일그룹은 단독으로 참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투자위원회를 열어 본입찰 후보 가운데 MBK 컨소시엄에 홈플러스 인수자금 투자를 약속하는 투자확약서(LOC)를 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규모 투자에 대한 위험을 낮추기 위해 주식과 채권(대출) 중간 형태인 메자닌 투자를 MBK에 약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액은 최대 1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국민재산을 갖고 유망하지도 않은 산업에 묻지마식 베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측은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곳인데, 이 회사가 수익 악화로 매각 절차를 밟는 것에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롯데 사태로 외국계 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좋지 않다"며 "홈플러스 역시 벌어들인 수익을 영국으로 가져가는 외국계 회사"라고 덧붙였다.

테스코의 희망 매각 가격은 부채를 포함한 기업가치(EV) 기준으로 7조~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4조원대까지 거론되고 있다. 금융업계는 본 입찰과 관련해 후보 가운데 합종연횡의 움직임도 나오긴 하지만 얼마나 적극적으로 뛰어들지는 미지수로 보고 있다.

홈플러스 매각은 내달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측은 "1조원 투자는 시장에서 예측한 수치이며, 공단 측에서는 제공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국민 자산을 갖고 유망산업이 아닌 곳에 묻지마식 베팅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9월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진행된 후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겠다"고만 답했다.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총수익률은 5.25%로 대체투자, 해외채권 등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총 23조326억원을 벌어들였다. 자산별 수익률은 대체투자 12.47%, 해외채권 9.23%, 해외주식 8.94%, 국내채권 6.79% 등이다.

반면 국내 주식 투자는 경기 침체로 마이너스 5.43%의 수익률을 보였다.

기금 운용·집행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은 20명으로 당연직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위원장)·기획재정부 차관·농림수산식품부 차관·지식경제부 차관·노동부 차관·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위촉위원인 사용자 대표 3인, 근로자 대표 3인, 지역가입자 대표 6인, 관계전문가 2인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문형표 장관에 이어 정진엽 후보자가 내정된 상태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관세청, 면세점 심사정보 유출 의혹

결과 발표전, 관련주 폭등 심사위원 외부접촉 정황

금융당국이 지난 7월 완료된 서울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관세청(청장 김낙회)의 면세점 심사정보 사전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유출 의혹과 관련한 자체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관세청은 지난 7월 10일 한화갤러리아 등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3곳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 6시간여 전인 오전 10시 30분께부터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가 상승제한폭인 30%까지 폭등하자 심사결과와 관련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을 받았다.

관세청은 시장에서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8~10일 2박 3일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이뤄진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합숙 심사 과정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여 왔다.

심사 당시 관세청은 심사위원들의 휴대전화를 반납받고, 관세청 심사 지원 인력들의 외부 연락도 금지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일부 직원이 합숙 과정에서 비상용 휴대전화로 친지 등 외부인과 통화한 정황을 감사 과정에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토대로 관련 관세청 직원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박상길 기자

까사미아, 플래그십스토어 '압구정점' 리뉴얼 오픈 토탈 인테리어 브랜드 까사미아(대표 이현구)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플래그십스토어 압구정점을 리뉴얼 오픈한다고 24일 밝혔다. 까사미아 압구정점은 동관은 '프리미엄 혼수가구 전문관'으로, 서관의 경우 '라이프스타일 소품 전문관'으로 특화 운영된다. /까사미아 제공

경제개혁연대 "신세계 차명주식 문제 심각"

총수일가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당국에 강력 제재 촉구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가 신세계그룹 차명주식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 관련 당국의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4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지난 2006년 차명주식 문제로 한 차례 논란이 됐던 신세계그룹에서 또다시 차명주식 문제가 불거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회에 조사범위를 그룹 전체로 확대해 차명주식을 발본색원하고,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차명주식 보유에 따른 각종 공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 10월 감사원의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실태 보고서를 보면 2006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신세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총수일가의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을 발견해 증여세를 추징한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신세계그룹 총수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신세계 명의의 당좌계좌에 입금된 60억원이 당좌수표로 인출된 직후 현금으로 교환돼 총수일가의 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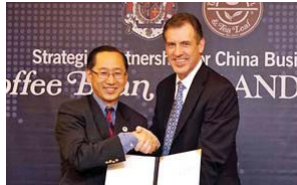
경제개혁연대는 이와 별도로 국세청의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상당한 규모의 차명주식이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연대 측은 "현재 국세청이 확인한 차명주식의 정확한 규모나 성격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2006년에 불거진 차명주식과 관련해 국세청은 그 규모나 과세금액 및 추징액에 대해서도 전혀 밝히지 않았고 검찰고발 등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길 기자

이랜드, 커피빈 중국 사업권 인수

이랜드그룹(회장 박성수·사진)은 글로벌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 빈 앤 티 리프'로부터 중국 사업권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랜드는 이번 사업 체결은 거대 커피 소비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하려는 미국 커피빈과 식음료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중국이랜드의 사업 목표와 이해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커피빈 본사에서는 중국에서 249개 도시, 1070개 백화점과 쇼핑몰에 7300여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1000만명의 VIP고객과 50여 개의 대형 유통 그룹과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는 이랜드의 네트워크와 성공 경험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이랜드는 700m² 규모 이상의 플래그십 스토어와 일반 표준점포, 소규모 점포 등 다양한 형태의 매장을 1000여 개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박상길 기자

'가을 햇 톱밥 꽃게 맛보세요' 24일 서울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모델들이 가을 햇 꽃게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오는 27일까지 전국 140개 점포에서 가을 톱밥 꽃게를 100g당 950원 초특가에 판매한다. /홈플러스 제공

외식업계 '엄지쇼퍼' 잡아라

모바일 매출 비중 증가 매장검색·주문·결제 등 스마트폰 서비스 강화

외식업계가 모바일로 쇼핑을 하는 이른바 '엄지족'을 잡기 위해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90%에 육박하면서 모바일을 통한 상품 판매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도미노피자는 피자 박스를 스마트폰 디자인으로 교체하며 '모바일 주문 앱의 편리함'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진행중이다. 도미노피자의 지난 6월 모바일 주문 비중은 35.4%로 1년 전보다 12% 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PC 주문 비중은 같은 기간 30.9%에서 25%로 떨어졌다.

SPC그룹의 배스킨라빈스에서는 지난달 해피포인트 앱 내에 '해피오더' 서비스를 선보였다. 해피오더는 예약주문 형태로 미리 결제하고 정해진 시간에 매장에 들러 제품을 바로 받아 갈 수 있는 서비스다.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주문 건수가 3만건을 돌파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배스킨라빈스는 이달 말까지 해피오더로 이용시 전 제품 10% 할인 및 해피포인트 10%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배스킨라빈스 제공

배스킨라빈스 관계자는 "해피오더는 서비스 론칭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할리스커피도 SK플래닛과 '시럽오더'를 서비스 중이다. 시럽오더는 소비자가 매장에 가지 않고도 주변 매장 검색은 물론 주문, 결제까지 스마트폰을 통해 한 번에 가능한 서비스다.

롯데리아는 배달서비스 주문 중 25%(지난해 기준)가 모바일 앱을 통해 접수된다. 모바일 주문은 롯데리아가 배달서비스를 시작한 첫해인 2011년 8%에서 3배나 늘었다. 이에 롯데리아는 올해 초 모바일 앱 외에 웹을 통해 홈서비스 주문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최근에는 롯데리아와 엔제리너스에 적용된 모바일 웹 페이지를 TGI프라이데이스, 크리스피크림도넛, 나뚜루팝의 모바일 전 브랜드로 확대 적용했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모바일 기기의 보급율이 90% 수준에 이르면서 고객이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찾는 첫 창구의 역할을 모바일 앱과 웹이 하고 있어 서비스 강화 추세"라고 말했다.

맥도날드는 올해 초 디지털 전략팀을 신설했다. 디지털팀에서는 모바일을 통해 매장에 들어오기 전에 주문과 결제를 완료하는 사전주문 서비스와 결제 서비스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포카칩·오!감자' 상반기 매출 1090억 돌파

오리온(대표 강원기)은 올해 상반기 감자스낵인 '포카칩'과 '오!감자' 합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1090억원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포카칩은 지난해 연매출 1300억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매출 기록을 세운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매출 77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수치다. 오!감자의 상반기 매출은 32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2%가 증가했다.

CJ제일제당 '삼호 부산어묵' 2종 선봬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이 프리미엄급 부산어묵 '삼호 부산어묵 진미'와 '삼호 부산어묵 백미'를 24일 출시했다. 가격은 각각 200g에 1480원, 206g에 1980원이다.

이번 신제품은 삼호어묵의 30년동안의 오랜 노하우와 기술을 기반으로 부산어묵의 참맛인 쫄깃함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설탕 1/3 줄인 커피 '모카골드 에스'

동서식품(대표 이광복)이 설탕은 줄이고 벌꿀과 자일리톨을 넣은 커피믹스 신제품 '모카골드 에스'를 24일 출시했다.

맥심 모카골드 S는 설탕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위해 새로 개발한 커피믹스다. 설탕을 1/3 줄이는 대신 자일리톨과 벌꿀을 넣어 커피 본연의 맛은 물론 건강한 단맛까지 느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거장 명작 담은 추석선물세트

애경그룹은 반고흐, 클로드 모네, 구스타프 클림트, 바실리 칸딘스키 등 거장들의 명화를 담은 추석선물세트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반고흐 선물세트는 케라시스 아트콜렉션(by. 반고흐), 디자인 종합 선물세트 1호(by. 반고흐) 등이다.

이 외에도 모네의 대표작 '수련', 클림트의 '키스', 칸딘스키의 '노랑, 빨강, 파랑' 등을 담았다.

에버랜드, 늦 여름 밤 '時 콘서트' 개최

제일모직(대표 김봉영 윤주화)이 운영하는 에버랜드가 29일 오후 6~8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에버랜드 장미원 특설 무대에서 '시(詩)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작년에 이어 2회째다.

윤동주 시인의 유고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주제로 진행되는 올해 콘서트에는 시인의 6촌 동생이자 쎄시봉으로 유명한 가수 윤형주씨가 출연해 토크 콘서트, 미니 콘서트 등을 진행한다.

롯데주류, 15도 '순하리 처음처럼 그린' 출시

단맛 아닌 부드러움에 초점

롯데주류(대표 이재혁)가 순하리 유자, 복숭아에 이어 '순하리 처음처럼 그린'을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25일 선보이는 순하리 그린처럼 그린은 기존 유자, 복숭아와 달리 과일의 향과 맛 대신 부드러운 목넘김과 깔끔한 맛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고급 과당과 쌀 발효 증류원액을 첨가하고 라임 향을 추가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롯데주류 제공

알코올 도수는 순하리 시리즈보다는 높고 '처음처럼'보다는 낮은 15도로 출시한다. 기존 순하리 제품(14도)에 비해 알코올 도수는 높지만 과즙 등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아 출고가는 다소 낮다.

롯데주류는 소주와 같은 가격대에 고급 과실주의 맛을 원하는 고객들을 타켓으로 출시한 순하리 유자와 복숭아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판단하고, '순하리'의 높은 인지도와 호감도를 바탕으로 단맛이 아닌 부드러움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제품을 기획했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순하리 처음처럼 그린은 20 ~30대 젊은 소비자, 특히 조금 더 소주다운 술을 선호하는 남성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내달 3일 '제 35회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 개최

SETEC서 5일까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조동민)가 '2015 제35회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를 9월 3~5일까지 서울 대치동 세텍(SETEC)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150여 개 업체가 참가해 200여 개 브랜드를 선보여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자발적으로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만큼 가맹비 면제·기술이전비용 지원·인테리어 지원·창업비용 무이자대출 등 실속 있는 창업지원책을 박람회 기본 특전으로 제공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SK플래닛과 손잡고 비콘서비스(저전력 블루투스를 통한 차세대 스마트폰 근거리통신)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은미 기자

경희대 수시 '교육 기회 균등' 실현

2016 대입전형안 발표

'학생부종합전형' 등 확대 '논술우수자전형'은 축소

수시모집 일정

전형	내용		일정
학생부종합 논술우수자 실기우수자	원서접수		2015.9.9.(수) ~ 9.12.(토)17:00
	실기고사, 특기재평가(면접)		홈페이지 참조
	논술고사		2015.11.14.(토) / 11.15.(일)
	면접고사	네오르네상스, 고른기회(Ⅰ·Ⅱ), 단원고특별	2015.11.28.(토) / 11.29.(일)
		특성화고졸재직자	2015.10.25.(일)

경희대학교가 2016학년도 수시모집을 9월 9일부터 16일까지 시행한다. 경희대는 이번 수시모집에서 고교 교육 정상화와 교육의 기회균등을 높이자는 취지로 학생부종합전형과 고른기회전형 비중을 확대한다. 반면에 논술우수자전형은 전년보다 축소하기로 했다.

경희대는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며 다양한 역량을 가진 학생을 선발한다는 기본 방향을 담은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체 모집인원은 4819명으로, 수시모집에서 62.8%(3025명), 정시모집에서 37.2%(1794명)를 선발한다. 경희대학교 수시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우수자전형, 실기우수자전형으로 나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전년도 1770명(정원 내 1651명)에서 2016학년도 1870명(정원내 1745명)으로 전년 대비 5.8% 확대했다. 전체 모집인원의 36.2%(1745명)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한다. 반면 논술우수자전형은 전년도 1040명에서 2016학년도 925명을 선발해 전년 대비 11.1% 축소했다.

이번 수시모집은 지난해에 비해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었고(전년 대비 5.4%) 논술우수자전형이 축소(전년 대비 11.1%)돼, 2015학년도보다 수시 모집인원이 245명 늘어났다.

지역균형전형은 2015학년도부터 신설된 전형으로 2016학년도에는 고교유형과 졸업연도의 기준을 완화해,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2014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들에게까지 지원 자격이 확대된다.

또한 2016학년도에 한해 세월호 참사 당시(2014.4.16.) 단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들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단원고 특별전형이 신설돼 8명을 제외한 정원외로 선발한다.

논술우수자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했다. 2015학년도에는 탐구영역을 2과목 평균으로 반영했지만, 2016학년도에는 탐구영역 상위 1과목만 반영한다. 또한 수능 자연계 응시자에게 인문계열 교차지원을 허용한 것이 올해 변화된 점이다.

학생부 종합전형 중 네오르네상스전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알려져 있다. 2015학년도부터 모집인원을 900명(2014학년도 580명 선발)으로 대폭 확대했고, 국외 고등학교 졸업생에게도 지원 자격을 부여했다. 2016학년도의 모집인원과 전형방법은 2015학년도와 동일하다. 네오르네상스전형은 경희대의 인재상인 세계인, 창조인, 문화인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네오르네상스전형과 고른기회전형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선택)의 서류종합 평가 성적 100%로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서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와 면접고사 성적 30%를 합산해 총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 지역균형전형과 학교생활충실자전형은 학생부교과성적 70%와 서류종합평가 30%를 반영해 일괄합산해 선발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경희대는 또 의예과와 한의예과, 치의예과에 대한 수시모집도 진행한다. 네오르네상스전형으로 의예과 18명, 치의예과 11명, 한의예과(인문) 6명, 한의예과(자연) 14명을 선발한다. 1단계 학생부 등 서류종합평가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와 인성면접 30%를 합산해 최종 정해진다.

논술우수자전형에서도 의예과 29명, 치의예과 17명, 한의예과(인문) 12명, 한의예과(자연) 34명을 선발한다. 네오르네상스전형에서 의학계열 인성면접이 전년도 10분 내외에서 올해 20분 내외로 강화됐다.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9월9일부터 12일까지이며 서류접수는 원서접수일부터 16일까지다. 1단계 합격자 발표는 11월18일, 면접고사는 같은 달 28일과 29일 양일간 진행된다. 논술고사는 11월 14일과 15일에 걸쳐 계열별로 진행된다. 합격자 발표는 12월 9일이다.

제출서류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선택)로 간소화했다. 개인 활동자료(포트폴리오)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전형자료 간소화는 학생부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는 동시에 수험생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서울캠퍼스 홍보실 관계자는 "이번 입시에서 주목할 만한 전형은 네오르네상스전형이다. 1단계에서 서류종합평가를 통해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70%)과 인성면접(30%) 점수를 합산해 최종합격자를 가려낸다.

서류평가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선택), 학교생활기록부)를 숙련된 입학사정관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잠재역량과 학업적성 역량으로 나누어 검토하여 종합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어떤 특정 서류나 특정 항목을 주목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전형적합성, 전공적합성, 학업발전성, 인화관계성, 자기주도성, 경험다양성의 6가지 평가 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평가한다. 6가지 평가기준 점수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평가해 100점에서 0점 사이에서 하나의 점수(예 85점)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결국 지원자가 6가지 평가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느냐가 당락의 열쇠가 된다"고 말했다.

/최치선 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오감만족 상상만족' 국제도예페스티벌 개막

남이섬서 내달 7일까지 도예문화 확산 위해 마련

나미나라공화국 남이섬이 9월 2일부터 7일까지 전세계 16개국 60여명의 도예작가와 함께하는 '2015 남이섬국제도예페스티벌'을 개막한다고 24일 밝혔다.

2일 남이섬 전통 가마 '남이요'에 불을 붙이는 화입식으로 6일간의 뜨거운 대장정을 시작하는 이번 축제는 도자와 흙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이색 체험과 어린이 워크숍이 준비돼 있다.

<나도 상상작가>는 남이섬 에코스테이지에서 진행되는 상설체험이다. 흙을 만지며 노는 '쪼물쪼물 흙놀이'를 비롯해 전통 도자 방식을 체험할 수 있는 물레체험 등 누구나 쉽게 도자를 접할 수 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어린이들이 국내외 도예작가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어보는 '초청작가 워크숍'이다.

▲남이섬의 꽃밭 만들기 ▲예술로 표현하기 ▲상상망치 뚝딱! ▲쥬라기 공원까지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체험이 가득하다. 5일과 6일 진행되며, 메일과 전화로 선착순 접수 가능하다.

9월 2일부터 7일까지 전세계 16개국 60여명의 도예작가와 함께하는 '2015 남이섬국제도예페스티벌'이 개막된다.

이밖에도 <인테리어 소품>을 주제로 한 '2015 남이섬국제도예 페스티벌 참여작가 展'이 열린다. 전시는 9월 2일부터 28일까지 남이섬 평화랑에서 관람 할 수 있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사단법인 한국전업도예가협회'가 주최하고 (주)남이섬이 후원하며, 생활 속의 도예문화 확산과 국제교류의 장을 위해 마련됐다.

강화수 2015 남이섬국제도예 페스티벌 실행위원장은 "상상을 디자인하고 창작의 자유로움이 있는 아름다운 남이섬에서 예술가와 대중들이 도자문화를 통해 교감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체험 문의 및 접수 na396@naminara.com 031-580-8073.

/최치선 기자

'슈퍼파워' 보는 재미에 먹는 즐거움까지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송용헌)은 디즈니의 마블캐릭터를 패키지 디자인에 적용한 컵가공우유 '슈퍼파워' 2종을 24일 출시했다. 가격은 각각 200ml 용량으로 1300원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제공

한미약품 '사랑한미다' 블로그 새단장

반응형웹 기술 적용 등 컨텐츠 다양화로 소통 강화

한미약품이 기업 공식블로그 '사랑한미다(www.hanmiblwog.co.kr)를 새단장 했다. 한미약품은 최근 '사랑한미다'의 컨텐츠를 다양화하고 모바일 연동이 가능한 반응형웹 기술을 적용하는 등 리뉴얼했다고 24일 밝혔다. 새로 단장한 사랑한미다는 한미약품의 비전과 철학을 다양한 측면에서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분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회사의 최신 소식을 전하는 Hanmi News를 비롯해 History(회사의 주요 역사), Meeting(한미인 이야기), Culture(문화예술 지원사업), Social(그룹 관련 SNS) 등을 주요 코너로 신설했다. 또 핵심 컨텐츠 중심의 심플한 디자인을 채택하고 한미약품 홈페이지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국 약국찾기 서비스 기능도 추가했다.

/최치선 기자

star bag

DMZ다큐영화제 알려요

배우 **유승호, 채수빈**이 제7회 DMZ국제다큐영화제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영화제 집행위원장인 조재현과의 인연으로 홍보대사로 참여하게 됐다. 다음달 1일 열리는 공식 기자회견에서 위촉식을 갖는다.

데뷔앨범 공개

신인 걸그룹 **에이프릴**(April)이 24일 정오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데뷔앨범 '드리밍(Dreaming)'을 공개했다. 타이틀곡은 '꿈사탕'이다. 프로듀서 황성제 사단의 버터플라이(ButterFly) 팀이 참여했다.

깜짝 싱글로 컴백

가수 **장재인**이 오는 28일 깜짝 싱글을 발표한다. 소속사 미스틱89는 24일 "장재인이 오는 28일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한 싱글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장재인이 자작곡을 발표하는 것은 2년 만이다.

8월 말 신곡 발표

가수 **주영**이 8월 말 신곡을 발표한다고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24일 전했다. 주영은 지난해 효린과 함께 한 '지워'로 메이저 데뷔 신고식을 마쳤다. 이달 말 세 번째 싱글로 활동을 재개한다.

밀랍인형 제작 전시

배우 **이종석**의 밀랍인형이 제작된다. 최근 영국 전문가들과 홍콩 마담 투소 관계자들과 함께 밀랍인형 제작을 위한 신체 사이즈 측정을 마쳤다. 내년 상반기 마담 투소 홍콩에 전시될 예정이다.

"작품 거듭할수록 도전하고 싶어요"

드라마 '너를 사랑한 시간' 하지원

배우 하지원(37)은 강한 캐릭터와 보이시한 역할을 많이 연기했다. 그를 떠올리면 칼을 휘두르고 와이어를 타는 모습에 익숙하다. 로맨틱 코미디였던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도 여자 스턴트 배우로 출연해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차에 치이는 등 선 굵은 이미지를 남겼다. 하지만 지난 16일 종영한 SBS 주말드라마 '너를 사랑한 시간'(이하 '너사시')에서 그는 기존의 이미지를 버리고 평범한 30대 커리어우먼 오하나를 연기했다. 일에는 똑부러지지만 사랑에는 늘 실패하고 아파하는 인물을 현실감 있게 그렸다.

그래서일까. '너사시'에서의 하지원의 모습을 낯설어하는 시청자들이 있었다. 일부러 여성스러운 척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낯선 모습 때문인지 시청률도 고전했다. 그러나 하지원은 '너사시'의 오하나야말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말했다.

"오하나는 지금까지 제가 맡았던 역할 중 제 실제 모습과 가장 비슷해요.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보여준 모습 때문에 이 역할이 낯설다고 하지만 제 친구들은 연기가 아니라 그냥 실제 제 모습이 나온다고 해요. 오히려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좀 더 친근하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었고요. 사우나에 가면 예전과 다르게 쉽게 말을 걸어주는 분도 생겼거든요."

'너사시'는 타사 경쟁작에 비해 낮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실망할 법도 하다. 하지만 하지원은 시청률이 드라마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한다.

"제 주위에는 드라마를 안 본 사람이 없어요. 촬영 끝나고 미용실이나 병원에 가면 재미있게 잘 봤다고 말도 걸어주셨고요. 현장에서 체감한 시청률은 높았어요. 저도 그렇고 스태프들도 시청률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않았고요. 요즘은 TV보다 VOD 등 다른 매체로 드라마를 많이 접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익숙한 2040세대에 맞춘 드라마였기 때문에 시청률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시청률에 연연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현장 분위기였다. 하지원은 현장에 푹 빠져있었다.

"정말 재미있게 촬영했어요. 이진욱과는 리허설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맞았고요. 재미있는 분이라 많이 웃겨주기도 했어요. 고등학교 시절 분량이 많아서 직접 교복을 입으니까 진짜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고요. 어머니도 보시더니 '아주 그냥 신이 났네'라고 하시더라고요(웃음)."

하지원은 현장을 즐길 줄 아는 배우다. 실제로도 배우 생활의 가장 큰 원동력을 물었을 때 "현장이 너무 좋다"고 말했다.

"감사한 일이죠. 배우로서 하는 모든 일이 좋아요. 내가 좋은 걸 하니까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많이 웃을 수 있으니까 별로 힘들지도 않고요. 물론 잠 못자고 촬영하면 힘들죠. 그래도 재미있어요. 연기를 즐기는 것, 그래서 연기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 맡은 역할 중 실제 모습과 가장 비슷
> 낮은 시청률? 체감 시청률 더 높아
> 배우 생활 원동력은 현장 즐기는 것

그러나 연기를 마냥 즐기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1996년에 데뷔해 벌써 20년차 배우다. 더께처럼 쌓인 연륜은 배우로서의 책임감을 품게 했다.

"다음을 정해두고 연기한 적 없어요. 다음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캐릭터를 하고 싶은지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시나리오에요. 시나리오가 좋으면 어떤 인물이든 상관 없어요. 도전을 계속 하고 싶어요. 할 수 있는 장르, 역할 다 해보고 싶어요. 배우로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좋아하는 메릴 스트립처럼요."

/하희철 기자 hhc@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강우석 감독의 신작 '고산자, 대동여지도' 촬영 돌입

차승원·유준상 등 캐스팅

강우석 감독의 신작 '고산자, 대동여지도'가 차승원, 유준상, 김인권, 남지현의 캐스팅을 확정하고 지난 17일 크랭크인했다.

'고산자, 대동여지도'는 조선 후기에 오로지 조선 팔도의 진짜 모습을 지도 속에 담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대동여지도를 완성하고자 권력과 운명, 시대에 맞섰던 고산자 김정호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2009년 대산문학상을 수상한 박범신 작가의 소설이 원작이다.

지난 17일 첫 촬영을 마친 뒤 강우석 감독은 "온전한 조선의 모습을 지도에 담겠다는 집념 하나로 평생 낯선 길을 걸었던 위인 김정호의 삶을 스무 번째 작품으로 만나게 돼 의미가 깊다.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고행자의 마음으로 좋은 작품을 위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전했다.

'고산자, 대동여지도'는 내년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 기자 solanin@

당 신 의 화 장 대 에 일 어 난 놀 라 운 기 적

화장대를 부탁해

상승세 탄 韓영화, 추석까지 관객몰이 노린다

여름 대작 흥행 속 관객 점유율 상승
'사도' '탐정' '서부전선' 등 개봉 앞둬

사도

탐정: 더 비기닝

서부전선

올 상반기 한국영화는 유례없는 침체를 겪었다. 외화 강세 속에서 한국영화는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 4월에는 관객 점유율 25.6%를 기록할 정도로 위기였다.

그러나 여름 대작들의 선전으로 한국영화는 다시 반등세를 타고 있다. 12번째 1000만 영화에 등극한 '암살', 그리고 13번째 1000만 영화 등극을 앞두고 있는 '베테랑'의 폭발적인 흥행 덕분이다. 관객 점유율도 상승하고 있다. 7월에는 48.0%를 차지했으며 8월 현재는 65.2%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극장가의 한국영화 강세는 9월에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추석 연휴를 맞이해 국내 메이저 배급사들은 일찌감치 다음달 라인업을 확정하고 개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쇼박스는 이준익 감독의 신작 '사도'로 또 한 번 흥행에 도전한다. 송강호와 유아인의 만남, 그리고 이준익 감독이 5년 만에 선보이는 사극이라는 점에 기대가 높다.

영화는 역사 속 가장 비극적인 아버지와 아들로 기록된 조선 영조와 그의 아들 세자의 이야기를 재조명한다. 이준익 감독은 "모두가 아는 역사 이야기 이면의 비극적인 가족사를 그리고 싶었다"며 "영조와 사도의 갈등에 대한 공감을 통해 관객들이 사극을 보다 가깝게 만났으면 한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CJ엔터테인먼트는 권상우, 성동일 주연의 '탐정: 더 비기닝'을 9월 라인업으로 꺼내들었다. 2006년 제8회 막동이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58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대상을 수상한 시나리오다. '찌찌한 로맨스'의 김정훈 감독이 만들었다.

코믹한 모습으로 돌아온 권상우, 그리고 노련한 형사로 변신한 성동일의 콤비 호흡이 관전 포인트다. 김정훈 감독은 "평범한 두 가장의 모험담을 유쾌하고 재미있게 그린 부분이 많은 공감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롯데엔터테인먼트는 '서부전선'으로 이들에 맞선다.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전쟁의 운명이 달린 비밀문서를 둘러싼 국군과 북한군 쫄병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설경구, 여진구가 주연을 맡았다.

드라마 '추노'와 영화 '7급 공무원'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의 각본으로 유명한 천성일 감독의 첫 장편영화라는 점이 관심을 갖게 한다. 천성일 감독은 "대부분의 전쟁영화는 전쟁을 지배하는 영웅들이 있다. 그런 영웅들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마음에 남는 영화를 해보고 싶었다"고 연출 의도를 설명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미래를 예측하는 네트워크 정보망

◆ KBS1 '창의 인재 프로젝트–생각의 집' 오후 11시40분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은 네트워크다'라는 주제로 아시아 태평양 이론물리센터 학술코디네이터이자 카이스트 석좌교수 정하웅 교수의 건명원 강의를 재구성한다. 네트워크 정보망이 현대 사회 속에서 지닌 힘을 파헤친다. 항공망처럼 이어진 네트워크 속에서 어떻게 빅데이터를 통해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법, 그리고 지역별 독감 환자의 수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방법 등 미래를 알고 대비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알아본다. /정리=하희철기자 hhc@

◆ SBS '불타는 청춘' 오후 11시15분

원조 청춘스타 박형준이 전격 합류한다. 박형준은 이상형인 강수지와의 만남에 입술까지 파르르 떨면서 긴장한다. 이어 함께 꿈 같은 드라이브를 즐긴다.

◆ JTBC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오후 11시

재외 한국인들을 위한 '동경 한국학교' 마지막 이야기. 고양이 캐릭터를 사랑하는 남자 심형탁은 드디어 일본에서 꿈에 그리던 고양이 캐릭터와 만나 감격의 눈물을 보인다.

◆ MBN '엄지의제왕' 오후 11시

심각한 색깔 편식에 빠져있는 우리 밥상의 충격적인 실태와 병을 막기 위해 꼭 먹어야 하는 '색깔영양소'를 알아본다. 생명을 지키는 놀라운 비밀이 '색깔영양소'에 숨겨져 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5일(화)

KBS1	KBS2	MBC	SBS	JTBC	MBN	tvN	홈스토리
05:00 KBS 뉴스 05:10 내 고향 스페셜 06:00 KBS 뉴스광장 07:50 인간극장 08:25 아침마당 09:20 KBS 뉴스 09:30 KBS 미래포럼 초청강연 1-창업경제의 비전 10:30 행복한 지도 (재) 11:00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11:55 바른말 고운말	06:00 2TV 아침 1부 07:00 2TV 아침 2부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9:00 TV소설 그래도 푸르른 날에 0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별난 며느리 (재)	05:00 MBC 뉴스 05:10 특선 어부의 만찬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7:50 이브의 사랑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09:30 MBC 생활뉴스 09:45 기분 좋은 날 11:00 2015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하이라이트	05:00 SBS 5 뉴스 05:10 굿모닝 510-충전 힐링 라이프 06:00 모닝와이드 (1~3부)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9:10 좋은아침 10:0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11:3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06:00 신인류 식품관 (재) 07:00 아웅다웅 동화나라 S2 (재) 07:30 JTBC NEWS 아침 & 09:10 닥터의 승부 (재) 10:25 연쇄쇼핑가족 (재) 11:50 냉장고를 부탁해 (재)	05:50 나는 자연인이다 (재) 06:50 굿모닝 MBN 08:00 아침의 창 매일경제 09:20 뉴스파이터 10:30 전국네트워크뉴스 10:40 현장르포 특종세상 (재) 11:50 알토란 (재)	06:00 SNL 코리아 꿀잼 에디션 (재) 06:30 집밥 백선생 (재) 07:50 삼시세끼 (재) 09:40 울지 않는 새 10:30 Let 미인 5 (재) 11:50 삼시세끼 정선편 (재)	05:00 큐티 06:00 놀랍지 아니한가 (재) 06:30 그림있는 집 (재) 07:00 권은순의 리빙앤스타일 (재) 07:30 야무진 공방 (재) 08:00 디자인 매거진 룸 S2 (재) 09:00 류승주의 건물탐방 (재) 09:30 자신만만 인테리어 (재) 10:00 스타 뉴스 11:00 그림있는 집 S2 11:30 어반 레전드
12:00 KBS 뉴스 12 13:00 역사저널 그날 (재) 13: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14:00 KBS 미래포럼 초청강연 2-한반도 통일의 비전 15:00 우리말 겨루기 (재) 16:20 TV, 책을 보다 (재) 17:00 KBS 뉴스 5 17:20 시사진단	12:05 청춘FC 헝그리 일레븐(재) 13:10 체인지업 도시탈출 (재) 14:00 KBS 뉴스타임 14:10 특선다큐 15:05 후토스 잃어버린 숲 (재)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6:00 TV 유치원 콩다콩 16:30 별별가족 (재) 16:35 동물의 세계 16:55 VJ 특공대 (재)	12:00 MBC 정오뉴스 12:20 TV속의 TV 13:10 꾸러기 식사교실 13:2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재) 14:05 내꺼야 폴록 (재) 14:30 내 품에 라바와 친구들 15:00 MBC 뉴스 15:40 통일전망대 16:25 딱 너 같은 딸 (재) 17:00 MBC 이브닝 뉴스	12:00 SBS 12뉴스 12:50 불타는 청춘 (재) 14:0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15:10 창업 스타 (재) 16:00 꾸러기탐구생활 스페셜 16: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17:00 SBS 뉴스 퍼레이드 17:30 꿈의 라이브 프리즘스톤	13:10 비정상회담 (재) 14:35 JTBC 뉴스 현장 15:50 4시 사건 반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4:1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5:30 뉴스 BIG 5 16: 50 뉴스&이슈	13: 40 막돼먹은 영애씨 14 (재) 15:00 오 나의 귀신님 (재) 18:00 문제적 남자 (재)	12:00 캐리비안 드림하우스 (재) 12:30 플리마켓 리폼대작전 (재) 13:00 싱글 생활백서 (재) 14:00 이색적인 이사 (재) 14:30 우리집을 살려줘 (재) 15:00 활력 충전 건강이 보인다 (재) 15:30 적중창업 (재) 16:00 류승주의 건물탐방 (재) 16:30 내 남자의 목공 (재) 17:00 와타나베의 건물탐방 S2·3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30 이웃집 찰스 20:25 가족을 지켜라 21:00 KBS 뉴스 9 22:00 미래 100년, 유라시아를 가다 2부작 23:00 KBS 뉴스라인 23:40 생각의 집 명강의 스페셜 24:35 독립영화관 <맛있는 인생>	18:00 KBS 글로벌 24 18:30 2TV 저녁 19:50 오늘부터 사랑해 20:30 생생정보 20:55 1 대 100 22:00 별난 며느리 23:10 우리동네 예체능 24:30 스포츠 하이라이트 24:55 뮤비뱅크 2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5 위대한 조강지처 19:55 MBC 뉴스데스크 20:55 딱 너 같은 딸 21:30 리얼스토리 눈 22:00 화정 23:15 PD수첩 24:10 MBC 뉴스 24 24:20 MBC 100분 토론	18:00 생방송 투데이 19:20 돌아온 황금복 20:00 SBS 8 뉴스 20:55 SBS 뉴스토리 22:00 미세스캅 23:15 불타는 청춘 24:35 나이트라인	18:30 냉장고를 부탁해 (재) 19:55 JTBC 뉴스룸 21:40 백인백곡 끝까지 간다 23:0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24:25 라스트 (재)	18:10 MBN 뉴스와이드 19:40 MBN 뉴스 8 20:40 고수의 비법 황금알 21:50 휴먼다큐 사노라면 23:00 엄지의 제왕 24:40 엄지의 제왕 (재)	19:40 오 마이 갓 20:40 현장토크쇼 TAXI 21:40 집밥 백선생 23:00 막돼먹은 영애씨 14 24:20 현장토크쇼 TAXI (재)	18:00 HGTV'S TOP TEN 19:30 우리집을 살려줘 (재) 20:00 자신만만 인테리어 20:30 싱글 생활백서 21:00 야무진 공방 (재) 21:30 그림있는 집 S2 22:30 Boy's Toys (재) 23:00 이색적인 이사 24:00 캐리비안 드림하우스 (재) 24:30 DIY 프로젝트

석현준, 슈틸리케호 골 가뭄 해소할까

월드컵 2차예선 명단발표
손흥민 등 유럽파 총출동

울리 슈틸리케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2~3차전을 준비하는 슈틸리케호가 최전방 공격자원으로 포르투갈 리그에서 활약하는 석현준(비토리아FC)을 비롯한 유럽파를 대거 소집했다.

24일 울리 슈틸리케 감독은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내달 3일 라오스와 8일 레바논을 상대하는 월드컵 2차 예선을 치를 23명의 태극전사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명단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원톱 스트라이커 자원으로 발탁된 석현준이다. 석현준이 태극마크를 단 것은 2010년 9월 이란과의 평가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5년 만에 슈틸리케 감독의 호출을 받게 됐다.

석현준은 지난 시즌 포르투갈 리그에서 10골을 터트리는 '알토란 활약'을 펼치면서 슈틸리케 감독의 시험대에 오르는 영광을 따냈다.

석현준과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놓고 경쟁을 펼칠 주인공으로는 '황태자' 이정협(상주)이 발탁됐다. 동아시안컵에서 원톱 자원으로 뽑혔던 김신욱(울산), 최근 K리그에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는 박주영(서울)은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석현준과 함께 유럽무대에서 활약하는 태극전사들도 대거 이름을 올렸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 허벅지를 다친 기성용(스완지시티)을 필두로 이청용(크리스털팰리스), 손흥민(레버쿠젠), 구자철, 박주호(이상 마인츠), 홍정호(아우크스부르크), 김진수(호펜하임)도 슈틸리케호의 월드컵 예선 여정에 동참했다.

석현준 황의조

동아시안컵에서 맹활약한 김승대(포항), 이재성(전북), 권창훈(수원)도 대표팀에 포함됐다. 더불어 지난해 12월 제주도 전지훈련에 합류했던 공격수 황의조(성남)도 최근 K리그에서의 맹활약을 앞세워 발탁됐다.

또한 동아시안컵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대학생 골키퍼 김동준(연세대)은 생애 첫 태극마크를 달았다. K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골키퍼 권순태(전북)도 2012년 2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었다.

슈틸리케 감독은 "동아시안컵을 통해 대표팀의 골결정력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런 이유로 석현준과 황의조를 선택했다"며 "대표팀 사령탑에 부임하고 나서 1년 동안 지켜본 많은 선수를 이번에 소집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팀은 오는 31일 경기도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결전을 준비한다.

/하희철 기자 hhc@metroseoul.co.kr

리디아 고, 캐나다오픈 연장전 우승

시즌 3승째… 김세영·유소연 공동 3위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8)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캐나다 퍼시픽 여자 오픈(총상금 225만 달러)에서 우승했다.

리디아 고는 24일(한국시간) 캐나다 밴쿠버의 밴쿠버골프클럽(파72·6656야드)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스테이시 루이스(미국)와 연장전을 치른 끝에 우승을 확정했다.

리디아 고는 공동 1위로 4라운드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날 버디 1개와 보기 1개로 이븐파에 그치면서 최종합계 12언더파 276타를 기록해 이날 5타를 줄이며 맹추격한 루이스에게 연장전 기회를 내줬다.

마지막 18번홀 버디 퍼트가 손바닥 한 뼘 정도를 남기고 홀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아쉬웠다. 그러나 같은 홀에서 열린 연장전에서 리디아 고는 약 1m 파 퍼트를 넣으면서 루이스를 제쳤다. 루이스는 두 번째 샷이 갤러리 사이에 들어가는 등 난조를 보이며 보기를 냈다.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8)가 24일(한국시간) 캐나다 밴쿠버의 밴쿠버골프클럽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캐나다 퍼시픽 여자 오픈에서 우승했다. /AP 연합뉴스

리디아 고가 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아마추어 시절인 2012년과 2013년 2년 연속으로 이 대회 정상을 밟았다. 특히 2012년에는 LPGA 투어 사상 최연소인 15세 4개월 2일의 나이에 우승해 주목을 받았다. 이번에는 프로 골퍼로 이 대회 정상을 밟았다.

이번 우승으로 리디아 고는 2월 ISPS 한다 호주 여자 오픈과 4월 스윙잉 스커츠 LPGA 클래식에 이은 시즌 3승째를 장식했다.

한편 김세영(22·미래에셋)과 유소연(25·하나금융그룹)은 뒷심을 발휘해 공동 3위를 차지했다.

김세영은 버디 5개와 보기 1개를 묶어 4언더파 68타를 치고 최종합계 11언더파 277타를 기록했다.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인 유소연은 공동 21위로 4라운드를 시작했으나, 이날 이글 1개와 버디 6개로 8타를 줄이는 맹타를 휘둘러 순위를 끌어올렸다.

/장병호 기자

'PGA투어 정규시즌' 드라마 없었다

윈덤 챔피언십 러브 3세 우승
우즈, 플레이오프 진출 좌절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14-2015시즌 정규대회가 모두 끝났다.

24일(한국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에서 막을 내린 윈덤 챔피언십을 끝으로 2014-2015시즌 정규대회가 마감됐다. 올해 정규대회 성적을 토대로 점수를 매긴 페덱스컵 포인트 순위 상위 125명이 플레이오프 대회를 치른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다름 아닌 몰락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의 플레이오프 진입 여부였다. 우승을 해야만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었다.

22일 대회 2라운드만 해도 공동 1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트리플보기 1개, 보기 2개를 적어 내 이븐파 70타에 그쳤다. 이로써 2013년 8월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 이후 찾아온 우승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공동 10위(합계 13언더파 267타)로 떨어지면서 페덱스컵 포인트 178위에 올랐다. PGA 투어 통산 79승을 유지한 채 다음 시즌을 기약하게 됐다.

우승컵은 만 51세의 베테랑 데이비스 러브 3세(미국)에게 돌아갔다. 합계 17언더파 263타로 우승하면서 PGA 투어 통산 21승과 함께 우승 상금 97만2000 달러(약 11억6000만 원)를 얻었다. 대회 전까지 125위권 밖이었지만 준우승을 차지한 제이슨 고어(미국)와 함께 이번 대회에서 극적으로 플레이오프에 나가게 됐다.

/하희철 기자

박주호·구자철, 동반 출전에 팀 첫 승

마인츠, 2-1… 리그 8위 올라

독일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마인츠05에서 함께 뛰는 구자철(26·사진)과 박주호(28)가 팀의 시즌 첫 승리에 힘을 보탰다.

마인츠는 24일(한국시간) 독일 묀헨글라트바흐에서 열린 2015-2016 독일프로축구 분데스리가 2라운드 보루시아 묀헨글라트바흐와의 원정 경기에서 2-1로 승리했다. 이로써 승점 3점을 보태 리그 8위에 올랐다. 1주일 전 리그 첫 경기에서 지난 시즌 2부리그에서 승격한 잉골슈타트에 0-1로 져 불안한 출발을 보인 마인츠는 1승1패를 기록하게 됐다.

박주호는 이날 선발로 출전해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라운드를 누비며 좋은 활약을 보였다. 구자철은 후반 45분 일본인 동료 선수 요시노리 무토와 교체돼 출전했다. 1라운드 경기에 결장했던 박주호는 풀타임을 소화했고 구자철은 두 경기 연속 교체 선수로 출전했다.

마인츠는 1-1로 맞서던 후반 34분에 크리스티안 클레멘스가 결승골을 터뜨렸다. 클레멘스는 이날 1골 1도움으로 맹활약했다.

/하희철 기자

SK group is gaining momentum as Tea Won Choi CEO busy working

최태원 회장 동분서주에 SK그룹 경영 탄력

The CEO, Tea Won Choi, is being pretty busy working and the management of the SK group is gaining momentum. The CEO, Choi is traveling around the country counting every minute in order to overcome this economic crisis and to achieve the creative economy.

최태원 SK그룹 회장

The CEO, Choi, is taking the Creative Economy Centre as a base and putting his efforts on start-up businesses and social businesses.

He is walking on a quite different path from other millionaire CEOs who usually had their focus on setting up the company-centered-growth-policies. The economic circles are paying attention to the CEO. Choi's economic-growth plan.

According to SK group and the economic circles on 23rd, the CEO. Choi is looking after inside and outside of the company after his release.

The CEO. Choi is absorbed in management on the spots. He is visiting subsidiary companies and encouraging the employees.

He took care of major company matters traveling about 3000 kms to Deajoen, Echon, Ulsan and so on over the recent week.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최태원 회장이 동분서주하면서 SK그룹이 경영에 탄력을 받고 있다. 최 회장은 경제위기극복과 창조경제 발전을 위해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며 전국을 누비고 있다.

최 회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창조경제센터)를 중심으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육성과 사회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기업위주의 성장 정책에 주로 초점을 맞췄던 기존 재벌 총수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재계는 최 회장이 추진하는 경제발전 성장 모델을 주목하고 있다.

23일 SK그룹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4일 출소 후 쉼 없이 그룹 안팎의 업무를 챙기고 있다.

최근 최 회장은 현장경영에 여념이 없다. 주요 계열사를 잇달아 방문하며 임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최근 1주일 동안 대전, 이천, 울산 등 약 3000㎞의 거리를 오가며 그룹의 주요 사안을 직접 챙겼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7	2	5		8	4			
				2				
	4	3				7		
9		6			2		3	8
5				9				7
4	7		5			6		2
		4				2	5	
				4				
			8	5		4	1	9

			6		1	8		
	1					2	3	
5		6		2				4
	9		5	7				
7			9		4			2
				6	3		5	
8				3		5		1
	3	2					7	
		5	7		8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스도쿠 정답

7	2	5	3	8	4	9	6	1
6	9	1	7	2	5	3	8	4
8	4	3	1	6	9	7	2	5
9	1	6	4	7	2	5	3	8
5	3	2	6	9	8	1	4	7
4	7	8	5	3	1	6	9	2
3	8	4	9	1	7	2	5	6
1	5	9	2	4	6	8	7	3
2	6	7	8	5	3	4	1	9

3	2	7	6	4	1	8	9	5
9	1	4	8	5	7	2	3	6
5	8	6	3	2	9	7	1	4
6	9	1	5	7	2	4	8	3
7	5	3	9	8	4	1	6	2
2	4	8	1	6	3	9	5	7
8	7	9	2	3	6	5	4	1
1	3	2	4	9	5	6	7	8
4	6	5	7	1	8	3	2	9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올해 승진할 수 있을까요? 3년 지나면 계속 승승장구

Blue hill 남자 79년 10월 22일 2시반경

Q 메트로를 사랑하는 애독자 입니다. 메트로를 보면 일간지의 축소판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뉴스를 집약해 놓았기 때문에 바쁜 시간이라도 세상사를 한 눈에 보는 것 같습니다. '사주속으로'를 보다 저의 관심사에 대하여 상담의뢰 합니다.

저의 집은 공무원 가정이라 할아버지나 아버지도 관료생활을 해왔기에 저도 대를 이어서 현재 관직에 있는데 세밀히 말씀드릴 수는 없네요. 일반 행정직은 아니고 안전보안 유지 관리 직종에 있습니다.

올해 승진케이스에 해당 되는데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야간 근무나 일정한 퇴근 시간이 없는 일이라 건강에 대한 염려도 됩니다.

A Blue hill님의 사주구조는 임수(壬水)일간이 10월 음력 술월(戌月)에 태어났는데 사주뿌리에 잠재돼있는 재물인 재성(財星)이 천간 투출(透出)에 투출됨이 없어 장사보다는 직장으로 탁월한 선택을 했으며 연월일시지가 토기(土氣)운이고 형충(刑沖)의 구조로 보안공무원이 되었군요.

1979년생(己未年生)으로 2015년은 승진보다는 주변 안전에 유의하시고 특히 음력 11~12월 관살혼잡(官殺混雜: 관성이 너무 많음)이 되니 차량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내용이 힘 빠지는 얘기라 할지라도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 이며 2016년이 되면 파격(破格)에서 절처봉생하여 승격(昇格)이 되니 귀하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월주에 백호살, 생일지에 괴강(보스기질에 과격함)을 놓아 권력계통에 인연이 있는데 사주에 지지가 모두 형살(刑殺)을 놓고 있으니 의협심도 강합니다.

이런 사주가 현재와 같은 직종에 종사를 안 한다면 틀림없이 흉액을 맞아 시비 송사에 휘말리게도 되는데 천직으로 여기고 조상님들께 감사하며 다른 생각 말고 더욱 열심히 종사 하십시오.

하늘을 보면 지금 날씨가 맑거나 구름이 끼었구나. 알듯이 음양의 조화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물이 아래로 흐르듯 운의 조력이 합세해진다고 봅니다.

다시 설명 드리지만 귀하의 관운이 3년이 지나면 록왕(祿旺)지로 가고 있으므로 계속 승승장구하는 운세입니다.

재물 운 역시 일간의 지장간(地藏干)에 재(財)가 장축(藏蓄)되어 있어 알뜰한 저축 형이며 사주(四柱)의 구성이 좋아 경제적 어려움은 없지마는 건강 운에서 사주상(四柱上)에 토(土)가 강하여 일간 임수(壬水)를 극(剋)하니 위계통과 신장질환을 유의하세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8월 25일 (음 7월 12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48년생 속이 시원하게 되는 때입니다. **60년생** 꼬여있던 일들이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72년생** 진취적인 기운이 맴돌고 있습니다. **84년생**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니 가속도가 더 해집니다.

49년생 하던 일이 무난히 풀려나갑니다. **61년생** 귀인이 생각도 못했던 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73년생** 사업운이 좋습니다. **85년생**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상대방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50년생 대화에 설득력이 있는 하루입니다. **62년생** 금전운이 좋지 않습니다. **74년생**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면 확실히 전달하도록 하세요. **86년생** 동생들과 만나는 일이 많아 지게 됩니다.

51년생 금전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63년생** 횡재를 바라게 되면 길하지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75년생** 투기성 있는 금전거래에 참여하는 일은 좋지 않습니다. **87년생** 애정운이 좋습니다.

52년생 적은 액수의 금전도 무시하지 마세요. **64년생** 사기에 걸려드는 수도 있으니 조심하도록 하세요. **76년생** 다른 때보다 무척 바빠집니다. **88년생** 좌우로는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합니다.

53년생 입지는 더욱 단단하게 될 것입니다. **65년생**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77년생**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89년생** 전업의 제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54년생 판단을 미루시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세요. **66년생** 눈앞에 드러나는 길을 따라 걷기만 하면 됩니다. **78년생** 기다려 보세요. **90년생** 상황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55년생 끝이 없고 감이 분명치 못합니다. **67년생** 뜬구름이 생겼다가 사라짐과 같습니다. **79년생** 한번 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90년생**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56년생 재수는 그래도 평탄한 편 입니다. **68년생** 마음이 심란하게 됩니다. **80년생** 깊이 개입하려 들면 어려워집니다. **92년생** 좋은 일은 주로 집 밖에서 생깁니다.

57년생 밖으로 나아가세요. **69년생** 동북 양방에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입니다. **81년생**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길합니다. **93년생** 오늘 하루 주변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58년생 조상을 잘 모셔야만 나쁜 일을 면합니다. **70년생** 재물이 집에 들어옵니다. **82년생** 두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이 밀고 나아가세요. **94년생** 한 때는 괴로움을 겪을 것입니다.

59년생 재물을 얻어도 모으기가 쉽지않습니다. **71년생** 부모님에게 안부전화를 하세요. **83년생** 금전거래는 후로 미루세요. **95년생** 즐거운 저녁식사를 하면 좋습니다.

진정이 담긴 사과가 분쟁을 막는다

김재현 변호사의
BizLaw

국내외거래를 하다 보면 여러가지 분쟁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분쟁상황은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숙제이다.

나는 변호사로서 분쟁을 해결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사정을 들여다 볼 기회가 많다. 분쟁은 예방이 가능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즉 분쟁을 신속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데도 대체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분쟁상황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피해자는 상대방이 진심으로 사과하면 더 이상 분쟁을 확대하지 않고 종결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분쟁 자체가 고통스러운 경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적 손실을 일부 분담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책임을 져야 할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발뺌을 하면 피해자는 그를 용서할 기회를 잃는다.

멋지게 용서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되니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고 분노를 느낀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파렴치한 가해자를 응징하겠다는 생각을 한다.

한편 가해자 측에서는 두려움이 있다. 책임이 상대방에게도 있는데 내가 잘못을 순순히 시인하고 사과를 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나중에 재판을 할 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를 하면 분쟁 자체가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하형록회장은 미국에서 주차빌딩건축설계로 유명한 Timothy Haahs & Associates, Inc의 대표이다. 그는 오바마정부 건축자문위원이기도 하다. 그는 'P31'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한번은 어떤 대학교의 주차빌딩 설계를 하고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학교 측으로부터 공사장 아래에 보일러관이 지나간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학교 측에서는 설계회사가 설계하기 전에 보일러관이 지나간다는 것을 미리 파악하고 보일러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하회장은 설계 당시에 학교 측이 보일러관이 오래되어 다시 설치할 것이라는 말을 한 것 같은데 학교측은 아무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회장은 난감하였지만 보일러관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지 않은 것은 자신의 잘못이기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였다.

그러자 대학 건축담당자는 "건축을 할 때마다 건축회사와 싸움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회사가 없었다. 더구나 '내 실수다'라고 먼저 말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면서 그 이후 대학의 모든 공사를 하회장에게 맡겼다고 한다. 이것은 정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진심어린 사과가 분쟁을 막고 해결해 준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社說

환율 불안에 유의해야

국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경제먹구름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에다 남북한 갈등까지 확대되는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경제공포도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부도위험 지수역시 상승해 2014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환율이다. 원·달러 환율은 5년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 1200원대를 넘보고 있다. 전세계가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오늘날 환율은 한 국가의 경제 건전성과 안전성을 가늠하는 가장 유력한 지표이다, 환율이 치솟는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 대한 국내외 시선이 차갑고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불안감이 확산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 경제부처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등 관련기관이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부산하다. 지금 우리 경제는 그렇지 않아도 허약하다. 늘어나는 것은 재벌의 사내유보금과 단기부동자금 뿐이다. 30대그룹 사내유보금은 700조원을 넘고 단기부동자금은 대략 900조원을 헤아린다. 단기부동자금은 올 들어 6개월 사이에 90조원이나 증가했다. 반면 내수의 기본단위라 할 수 있는 가계경제는 부실하다. 이 때문에 국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내수는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허약한 경제를 그나마 외국인 투자자들이 메워주면서 환율과 증시가 비교적 안정돼 왔지만, 최근 악재가 겹치면서 이마저 불안해졌다.

지금 우리 경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는 이런 난국에 보다 확실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들을 차단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환율이 과도하게 요동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 진행중인 남북한 고위급 회담을 원만하게 끝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북한 도발에 군복 꺼내 든 예비군

기자 수첩
윤 정 원
<정치부>

남북 고위급 접촉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북측에서는 우리정부에 여전히 도발을 일삼고 있다. 지난 4일 목함지뢰도발을 시작으로 북에서는 연천과 파주지역에 고사포를 쏘며 국내외적인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후 어렵사리 남북 고위급 만남이 성사됐으나 사흘째 양측은 제대로 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회담 진행 중에는 북측이 동·서해기지의 잠수함 50여 척을 기동시킨 사실도 알려졌다. 휴전선 일대에는 북한군 포병전력이 고위급 접촉 시작 전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이같은 긴장 구도 속에 국민의 우려가 있는 반면 최근에는 온라인상에 "항시 대기하고 있으니 언제든 불러만 달라"는 글을 게재하는 청년층들이 생겨났다. 지난 21일 국방부 페이스북에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올린 "추가 도발이 있을 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글 아래에만 해도 현재 1만9000개에 달하는 '좋아요'와 180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에는 대개 북한과의 전쟁 발발 시 군사력에 보탬이 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예비군들이 댓글과 함께 올리는 군복 인증사진은 이제 페이스북 내에서는 유행 수준으로 번졌다.

자국 상황에 관심이 없다고 여기던 젊은이들이 힘을 모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내용이 퍼지는 모습은 보기 좋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이 보여주기식 물타기에만 그치는 게 아닌지, 전쟁의 두려움을 희미하게끔 하고 전쟁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된다. 실제로 북진통일론을 외치며 "한판 붙어서 북한 정권을 몰락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글들은 온라인 내에서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다.

오랜 휴전과 작은 몇몇 국지전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에 대해 많이 무뎌진 듯하다. 전쟁에는 영토와 국민의 목숨이 달려있다. 아무리 전면전의 가능성이 작고 소규모의 국지전으로 끝난다 해도 전쟁의 피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갖게 된다. 전쟁이 발발하면 자국을 돕겠다는 청년들의 마음은 아름답다. 그러나 전쟁에서 열심히 싸우기보다는 전쟁이 나는 것을 최우선으로 저지하는 편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일월드' 피해 주의보

소비자 119

소시모, 5일간 145건 접수

소비자 A씨는 2014년 1월 5년 약정으로 월 2만9500원의 렌탈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한일월드(주) 정수기 렌탈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정수기 냉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미온수가 나와 수리를 받으려고 업체 A/S센터에 연락을 했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수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B씨는 한일월드 비데를 사용하던 중 2015년 7월 말에 비데가 고장이 나서 A/S를 신청했다. 그러나 한일월드 측은 A/S를 해주지 않았고 현재는 업체와 전화 연결도 되지않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최근 정수기·비데 판매업체 '한일월드'에 대한 상담문의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24일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17~21일 전국 단일 소비자 상담망인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모두 145건의 한일월드 관련 상담이 접수됐다.

소비자 피해 상담의 대부분이 A/S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것이다.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확인해 본 결과 한일월드 고객센터와는 전화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A/S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많은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A/S 상담 대부분은 한일월드가 정수기와 비데 판매 후 제품 불량이나 고장 등과 관련한 수리서비스에 대해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소비자시민모임은 한일월드에 피해 보상 조치와 사후 수리 서비스를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인 사

◇GSK △승진 <이사급> ▲제약 영업부 김기성 ▲백신 영업부 이규남 ▲HIV 사업부 권희진 ▲법무팀 오수정 ▲도매유통팀 박동순 <본부장급> ▲대외협력팀 김정식 ▲영업기획팀 박진경 △㈜GSK 컨슈머 헬스케어 승진 <이사급> ▲영업부 윤장진 <본부장급> ▲영업부 최용묵 ▲재무부 허태석

◇브릿지경제 ▲온라인뉴스부장 김성욱 ▲편집국 금융증권부장 이승제

◇아시아타임즈 △국장대우 ▲산업부장 안종일 △부국장 ▲건설부동산부장 최환금

부 고

▲김옥환씨 별세, 규태(전 IBK기업은행 전무이사,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규상(에펠건설 대표)·창배(파티마병원 의사)·인배(덕유건설 대표)·상배(메가리치 대표)씨 부친상, 나재섭(SK텔레콤 매니저)씨 빙부상 = 23일, 대구파티마병원 501호실, 발인 26일 ☎ 053-956-4445

▲박재복씨 별세, 정우현(한국신문협회 전략기획부 차장)씨 모친상 = 24일, 대구의료원 국화원 202호실, 발인 26일 오전 7시 ☎ 053-560-9571

▲심무준씨 별세, 홍성준(전 새누리당 부대변인)·혜숙·혜선(강원대 근무)씨 모친상, 임동원((주)레인보우 이사)씨 시모상, 권순배(강원도 농업기술원 근무)씨 빙모상, 이영철(삼성전자 책임연구원)씨 외조모상 = 24일, 강원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6일 오전 7시 ☎ 033-258-9402

▲윤한영씨 별세, 황진하(새누리당 사무총장)·정하(유니크 대표이사)·금자· 옥자·명하씨 모친상, 김보경씨 시모상 = 24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6일 오전 9시 ☎031-940-9100

기사제보=02)721-9832

부드러움이
쏟아지는
해변으로가요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
천연미네랄
처음처럼
부드러운 17.5도
알칼리환원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SOJU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